E 01-2019-01

2019 봄

농업·농촌경제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정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kmh0618@krei.re.kr, 김충현 goldbl@krei.re.kr, 박동규 dgpark@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116 팩스: 061-820-2409

목 차

Ⅰ.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5
3. 소비 ····· 6
4. 물가 ····· 8
5. 금융·환율 ····· 13
6. 세계경제 ····· 16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19
2. 농촌 물가 ····· 20
3. 농림어업 취업자 ····· 23
4. 농축산물 수출입 ····· 25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31
2. 엽근채소 ····· 35
3. 양념채소 ····· 40
4. 과일 ····· 48
5. 과채 ····· 52
6. 축산 ····· 60

Ⅳ. 음식물 농축산물 소비 실태

1. 조사 개요 ····· 67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 68

특별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 79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 91

요 약

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됨.
- 2019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4~2.5%로 전망됨.
- 2019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16만 명으로 나타남.
- 2018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함.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 2019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 FOMC 회의의 완화적 결과와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폭 하락함.
- 2019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 등으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II.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8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4.7% 성장함.
- 2019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전분기 대비 2.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수,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3.5%, 1.7% 상승하였으나, 채소 및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6% 하락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4%, 4.2%, 3.6% 상승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8.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악화되었으나 전분기 대비 2.5% 개선됨.
  -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0.7%)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폭(1.5%)이 더 커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5.3%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6%,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 2017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 수당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함.
- 농업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산정해야 함.
  - 둘째, 다원적 기능의 범주를 넘어 유사한 개념과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통합되고 상이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 시,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함.
  - 넷째, 다원적 기능이 지닌 비시장 재화의 특성 때문에 해당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 방법론이 요구됨.
- 1992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농정 개혁은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되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자체를 기능(순기능 → 순기능 및 역기능)과 시간(과거에서 현재 → 현재에서 미래) 차원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개념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농업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함.
  - 스위스 사례를 참고한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은 세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면 그 성과물로 다원적 기능의 산출 및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것이 됨.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재생에너지 3020」를 추진 중이며 특히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320.1천 toe로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0.8%에서 2016년 4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율은 2001년 15.3%에서 2016년 50.6%로 증가하였음.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201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새로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차별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하였고,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규정,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로 3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단순한 수익성 사업으로서의 에너지발전이 아닌 마을,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체계적 모델 필요하며,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소비 패턴 개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에너지절감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의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Ⅰ. 일반경제 동향[1)]

1. 경제성장[2)]

- 2019년 1/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했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는 감소로 전환되었음.
  -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 대비 0.2%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p					2018p					2019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G D P 성장률	3.1	1.0	0.6	1.4	-0.2	2.7	1.0	0.6	0.6	1.0	-0.3(1.8)
민간소비	2.6	0.5	1.0	0.8	1.0	2.8	0.7	0.3	0.5	1.0	0.1(1.9)
정부소비	3.4	0.6	1.2	1.9	0.5	5.6	2.2	0.3	1.5	3.0	0.3(5.2)
건설투자	7.6	4.2	0.9	1.1	-2.3	-4.0	1.8	-2.1	-6.7	1.2	-0.1(-7.4)
설비투자	14.6	4.5	4.3	0.2	-0.7	-1.6	3.4	-5.7	-4.4	4.4	-10.8(-16.1)
총 수 출	1.9	2.1	-2.7	5.6	-5.3	4.2	4.4	0.4	3.9	-1.5	-2.6(0.2)
총 수 입	7.0	4.9	-1.0	3.2	-2.9	1.7	4.9	-3.0	-0.7	1.5	-3.3(-5.4)

주 1. 2017p,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0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 연구원(kmh0618@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2019년 1/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2019.04.25.)」,「2019년 경제전망(수정)(2019.4.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최근경제동향(2019.04.12.)」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민간 및 소비지출 부분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과 설비 및 건설투자가 감소로 전환됨.
  - 2019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준내구재 중심의 소비가 줄었으나,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기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 2019년 1/4분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하여 전기 대비 10.8% 감소함.
  - 수출은 LCD 등의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기계 및 장비, 광산품에서 감소세를 보여 전기 대비 3.3% 감소함.
- 경제활동별로는 농림어업 부분에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함.
  -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4.7% 증가함.
  -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와 화학제품 등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2.4% 감소함.
  -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이 감소하였으나,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기 대비 0.9%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7p					2018p					2019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농림어업	0.3	3.9	-0.3	-1.8	0.2	1.5	6.0	-2.8	-5.5	6.1	4.7(2.3)
제조업	4.4	1.7	0.1	2.7	-1.7	3.6	1.6	0.6	2.3	0.9	-2.4(1.4)
서비스업	2.1	0.4	0.7	1.0	0.3	2.8	1.1	0.5	0.5	0.6	0.9(2.6)
(도소매 및 음식숙박)	0.7	-1.3	0.6	1.2	0.4	1.4	-0.8	0.8	0.5	1.0	-1.1(1.1)
(정보통신)	2.5	0.9	-0.5	2.4	1.5	2.7	1.1	-1.6	2.0	-1.0	3.2(2.4)
(금융 및 보험)	3.7	0.7	2.1	0.3	-0.4	4.8	3.7	1.9	-1.3	-0.3	4.7(4.9)
(보건 및 사회복지)	7.3	0.8	2.2	3.0	1.6	7.5	0.2	0.8	4.8	3.4	-0.7(8.5)

주 1. 2017p, 2018p, 2019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0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면, 경제성장률은 2019년 2.3~2.6%, 2020년 2.6~2.8%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국내경제는 재정정책이 확장적인 가운데 완만한 소비 증가세와 하반기 이후 수출 및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됨.
-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지속적 하락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가계소득 개선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명목임금 상승률 약화와 자영업 업황부진의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 이전지출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월세가격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의 요인은 제한적·단기적으로나마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전반적인 경기하락에 따른 추가 증설 요인이 소진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임.
  - 세계경기 하락에 따른 교역규모 축소 역시 설비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디스플레이 관련 대규모 투자와 정유·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 증설, 조선산업의 업황 회복가능성 등은 설비투자 증가요인으로 기대됨.
-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임.
  - R&D 투자는 기업 매출액의 증가율 둔화, 수익성 저하 등에 따른 투자여력 제한이 예상되어 2019년중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 R&D 예산 증가 등의 요인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기타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확대,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임.
-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임.
  - 주거용 건물은 최근 2~3년간의 선행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하겠으나,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
- 토목은 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SOC투자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착공 지원과 같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임.

• 상품수출은 지난해에 비하여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임.

- 미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 상대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교역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실질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성장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8					2019e)					2020e)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OECD	IMF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OECD	IMF	한국은행	OECD	IMF
GDP	2.7	2.7	2.7	2.7	2.7	2.5	2.4	2.3	2.6	2.6	2.6	2.6	2.8
민간소비	2.8	2.8	2.8	-	2.8	2.5	2.5	2.5	-	-	2.5	-	-
설비투자	-1.6	-1.7	-1.6	-	-1.6	0.4	-1.0	-2.8	-	-	2.6	-	-
건설투자	-4.0	-4.0	-4.0	-	1.9	-3.2	-5.0	-3.8	-	-	-1.8	-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2.0	-	-	-4.0	2.5	1.7	-	-	-	2.9	-	-
상품수출	4.0	3.9	-	-	4.0	2.7	2.9	-	-	-	3.0	-	-
상품수입	1.9	1.5	-	-	1.9	1.6	3.1	-	-	-	2.5	-	-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경제전망(수정)(2019.04.1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1분기 경제동향과 전망(2019.03.25.)」,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2018.09.20.)」, OECD에서 발표한 「Interim Economic Outlook(2019.03.06.)」, IMF에서 발표한 「World Economic Outlook(2019.04.09.)」자료를 참고함.

2. 2019e), 2020e)은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OECD, IMF

2. 고용[3)]

- 2019년 1/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7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46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농림어업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42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가 11만 4천 명, 일용근로자가 2만 9천 명 감소하였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 9천 명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8천 명 각각 감소하였음.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7,748	27,895	27,464	28,125	28,080	27,912	27,702	0.9
(경제활동참가율)	63.2	63.1	62.3	63.7	63.5	63.0	62.4	0.2
취 업 자	26,725	26,822	26,283	27,019	27,015	26,971	26,461	0.7
• 농 림 어 업	1,279	1,340	1,056	1,457	1,481	1,367	1,158	9.7
• 광 공 업	4,589	4,529	4,597	4,509	4,496	4,514	4,447	-3.3
(제 조 업)	4,566	4,510	4,575	4,487	4,479	4,499	4,432	-3.1
• 건 설 업	1,988	2,034	1,977	2,031	2,035	2,094	1,970	-0.4
• 도소매·음식숙박업	6,083	5,965	6,000	5,979	5,955	5,928	5,943	-1.0
실 업 자	1,023	1,073	1,181	1,105	1,065	942	1,241	5.1
실업률(계절조정)	3.7	3.9	3.7	3.8	4.0	3.9	3.9	5.4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19년 3월 고용동향(2019.01.09.)」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9.04.12.)」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18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함.
- 2019년 2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3.3%)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0.9%),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8%)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5% 하락함.
- 국산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소매판매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액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의 요인은 소매판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17	2018p					2019p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p	2월p
민 간 소 비	2.6	2.8	0.7	0.3	0.5	1.0	-	-
소 매 판 매	1.9	4.3	2.1	0.6	-0.2	-0.1	0.1	-0.5
(내 구 재)1	5.3	5.6	4.7	0.2	-2.6	0.3	-0.7	-0.9
(준내구재)2	-1.1	5.9	0.7	3.0	1.7	0.6	-5.0	3.3
(비내구재)3	1.8	2.9	1.5	-0.2	0.4	-0.5	2.7	-1.8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18년, 2019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18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1만 원으로 전분기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 이전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9%, 6.2%, 4.9% 증가하였음. 반면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55.3%로 크게 감소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최근경제동향(2019.01.11.)」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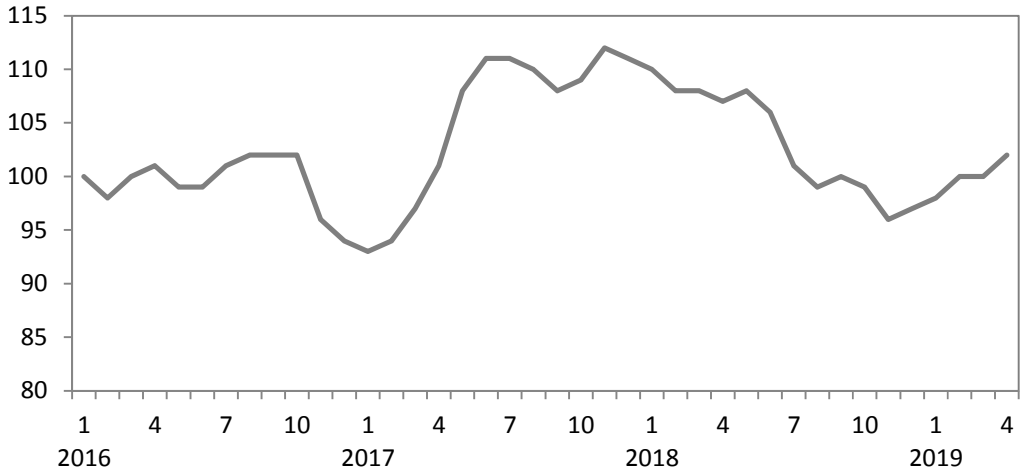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소 득	0.8	0.9	2.1	3.1	3.7	4.2	4.6	3.6
경상소득	0.8	1.1	2.5	3.4	7.5	6.3	5.7	4.8
(근로소득)	0.0	0.5	1.6	0.9	6.1	5.3	4.5	6.2
(사업소득)	0.9	4.1	6.2	8.5	5.7	3.8	1.1	-3.4
(재산소득)	15.2	12.9	34.4	9.5	3.4	34.4	9.3	4.9
(이전소득)	5.3	-1.6	1.0	10.1	19.2	16.6	22.8	11.9
비경상소득	1.7	-4.0	-18.0	-11.7	-79.2	-68.6	-49.6	-55.3

자료: 통계청

- 2019년 4월 소비심리지수[5]는 전월(100) 대비 소폭 증가한 102로 전년 동월(107) 대비 4.7% 감소함.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19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는 104.5로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였음.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총 지 수	102.9 (1.9)	104.5 (1.5)	103.9 (1.1)	104.3 (1.5)	104.8 (1.6)	104.8 (1.8)	104.5 (0.6)
상 품	101.3 (1.9)	102.7 (1.3)	102.1 (0.5)	102.2 (1.2)	103.1 (1.6)	103.2 (2.1)	101.7 -(0.4)
농축수산물	109.5 (5.5)	113.6 (3.7)	112.2 (0.7)	110.0 (2.0)	117.1 (4.9)	115.0 (7.1)	112.5 (0.2)
공업 제품	100.9 (1.4)	102.2 (1.3)	101.7 (0.7)	102.3 (1.5)	102.5 (1.8)	102.5 (1.1)	101.0 -(0.7)
전기·수도·가스	89.5 -(1.4)	86.9 -(2.9)	87.5 -(1.9)	87.5 -(3.0)	84.0 -(7.0)	88.7 (0.3)	88.6 (1.3)
서 비 스	104.3 (2.0)	105.9 (1.6)	105.4 (1.5)	106.0 (1.7)	106.2 (1.5)	106.2 (1.6)	106.7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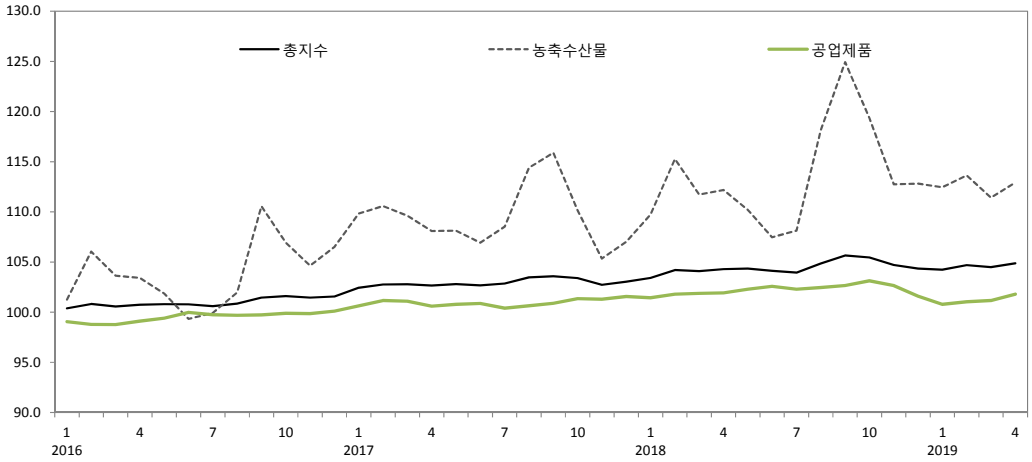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상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4%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의 경우 1.3% 상승함.
  - 2019년 3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인해 채소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전년대비 하락폭이 감소하였음.

6) 물가 부문은 통계청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2019.04.02.)」, 한국은행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2019.04.19.)」, 「2019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2019.04.12.)」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19년 3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전월 대비 교통, 기타 상품·서비스는 상승하였으며 보건, 교육은 변동이 없고, 식료품·비주류음료, 오락·문화,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의류·신발, 주류·담배, 통신, 가정용품·가사서비스는 하락하였음.
  - 전년 동월 대비로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7개 부문은 상승하였고 의류·신발은 변동이 없었으며, 교통, 통신, 보건, 주류·담배는 하락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로 전년 동기 대비 0.2% 상승하였으며, 전분기 대비 2.1% 하락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 상승하였고, 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물, 과실, 기타농산물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5%, 4.9%, 3.1% 상승하였고 채소와 축산물, 수산물이 각각 10.3%, 1.6%, 0.2%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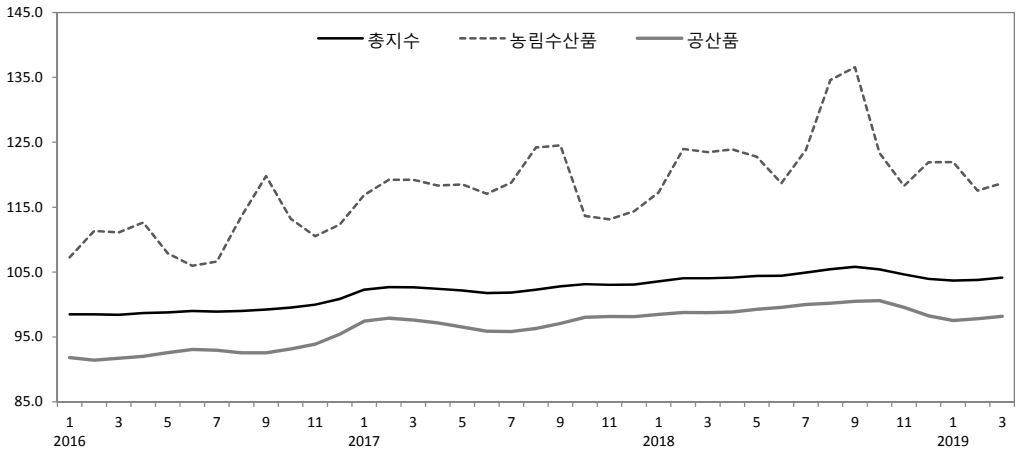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15=100)

구분	2018					2019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축수산물	113.6	112.2	110.0	117.1	115.0	112.5	0.2	-2.1
농산물	117.3	116.0	111.2	122.0	120.0	117.6	1.3	-2.0
곡물	108.1	100.9	105.8	108.2	117.6	119.6	18.5	1.7
채소	121.8	122.9	111.1	134.2	118.8	110.3	-10.3	-7.2
과실	115.8	115.0	111.4	116.5	120.2	120.7	4.9	0.4
기타농산물	125.7	126.1	122.9	124.7	129.0	130.0	3.1	0.8
축산물	107.3	105.6	105.8	110.8	107.1	103.9	-1.6	-3.0
수산물	113.3	112.6	114.3	112.7	113.6	112.4	-0.2	-1.0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03.9로 전년 동기와 동일함.
  - 2019년 3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축산물 등이 올라 전월 대비 1.0% 상승함.
  -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4% 상승함.
  - 서비스는 사업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83.0으로 전분기 대비 3.4%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함.
- 2019년 3월 수출물가지수는 83.4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인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5.0% 하락함.
- 2019년 1/4분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7.9로 전분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4.1% 하락함. 3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06.9로 전월 대비 보합임.
- 2019년 1/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2.9로 전분기 대비 3.4%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하였으며, 3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83.2로 전월 대비 0.5% 상승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5.7	85.7	84.3	84.8	87.8	85.9	83.0	83.0	83.4
	(6.1)	(0.0)	-(2.1)	-(0.1)	(2.1)	(0.1)	-(1.6)	-(2.4)	-(0.5)
농림수산품	109.5	104.9	103.6	102.8	105.8	107.5	107.9	106.9	106.9
	(7.4)	-(4.1)	-(1.1)	-(6.2)	-(7.4)	-(1.6)	(4.1)	(3.9)	(1.5)
농 산 물	143.4	145.9	130.8	135.9	153.1	164.0	170.8	169.4	164.9
	-(1.6)	(1.8)	-(6.4)	-(9.3)	(1.4)	(23.4)	(30.6)	(28.6)	(22.1)
공 산 품	85.6	85.6	84.2	84.7	87.7	85.8	82.9	82.8	83.2
	(6.1)	(0.0)	-(2.1)	(0.0)	(2.1)	(0.1)	-(1.6)	-(2.4)	-(0.6)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86.4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였고, 전분기 대비 2.3% 하락함.
- 2019년 3월 수입물가지수는 87.6으로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함.
  - 2019년 3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이 올라 전월 대비 1.2% 상승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6%, 0.7% 상승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1.6% 상승함.
- 2019년 3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92.0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0년=100)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월	3월
총 지 수	82.0	87.1	83.49	86.73	89.87	88.37	86.35	86.5	87.6
	(6.5)	(6.2)	(0.4)	(7.6)	(10.5)	(6.7)	(3.4)	(3.5)	(4.3)
농림수산품	94.0	92.2	90.83	92.71	92.6	92.74	91.23	90.6	92.0
	(0.2)	-(1.9)	-(7.2)	-(1.0)	-(0.3)	(1.5)	(0.4)	-(1.1)	(0.4)
농 산 물	82.9	82.8	81.01	83.87	83.4	83.07	80.9	80.6	80.8
	(0.8)	(0.0)	-(6.7)	(2.8)	(1.0)	(3.1)	-(0.1)	-(1.0)	-(2.2)
축 산 물	113.7	109.5	109.31	107.78	109.33	111.6	111.32	110.1	114.1
	-(1.8)	-(3.7)	-(6.7)	-(5.9)	-(2.4)	(0.6)	(1.8)	-(0.7)	(5.2)
공 산 품	84.6	86.9	84.49	86.21	89.03	87.8	86.07	85.9	87.0
	(1.7)	(2.7)	-(1.5)	(3.6)	(5.5)	(3.4)	(1.9)	(1.5)	(2.0)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7)]

- 2019년 2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 2019년 2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은 감소하였으나,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수익증권,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9년 2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3%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18												201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1[1]	6.3	8.1	6.6	6.2	6.2	5.9	4.8	4.0	4.3	1.7	2.7	1.9	2.1	1.9
M2[2]	5.5	6.2	5.8	5.7	5.9	6.1	6.7	6.7	6.4	6.8	6.8	6.8	6.5	6.2
Lf[3]	6.4	6.9	6.7	6.6	6.6	6.7	7.1	7.1	7.2	7.4	7.5	7.6	7.4	7.1
본원통화[4]	6.7	9.2	10.8	8.0	7.4	9.2	8.8	8.8	10.3	7.1	8.2	9.2	8.7	8.4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9년 3월 국고채(3년)금리는 미 FOMC 회의의 완화적 결과와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폭 하락함.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19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2019.4.11.)」과 「2019년 3월중 금융시장 동향(2019.4.11.)」, 「2019년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19.4.10.)」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회사채(3년)금리 역시 높은 투자수요가 이어지면서 하락함.
- 단기시장금리는 장기금리 하락과 4월 이후 MMF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함.
-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해 약세를 이어오다, 4월 들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 등으로 상승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18										201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국고채(3년)	2.27	2.19	2.25	2.18	2.10	2.02	1.95	2.01	1.94	1.83	1.81	1.80	1.79
회사채1	2.83	2.79	2.86	2.81	2.75	2.66	2.40	2.45	2.40	2.30	2.26	2.25	2.24
CD유통수익률(91일)	1.65	1.65	1.65	1.65	1.65	1.65	1.65	1.68	1.71	1.91	1.87	1.87	1.90
콜금리2	1.49	1.47	1.50	1.49	1.49	1.50	1.54	1.52	1.51	1.77	1.75	1.76	1.76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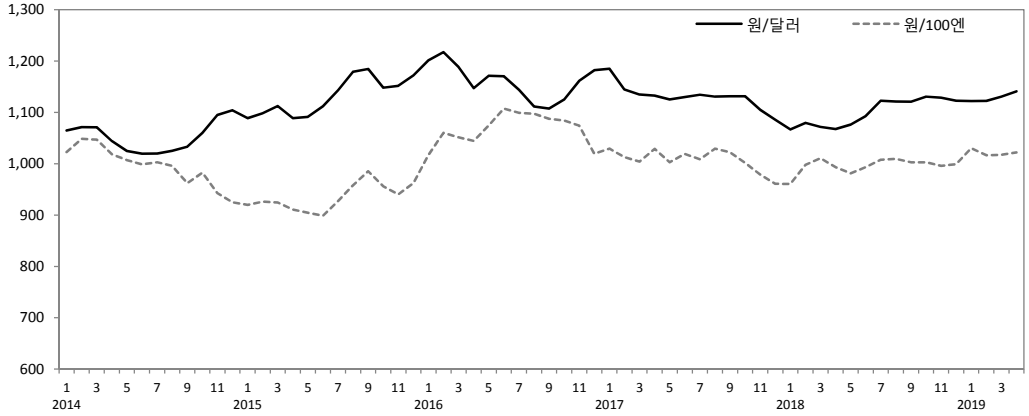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분기 대비 2원 하락한 1,125원임.
  - 2019년 3월 미 달러화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양호한 경기여건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여 환율 상승이 기대됨.
- 2019년 1/4분기 원/위안 환율은 167원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환율 역시 상승하여 1,022원을 기록함.
- 2019년 3월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으나, 원달러 환율의 기간중 표준편차는 전월 대비 확대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원/달러	1,131	1,100	1,072	1,079	1,122	1,128	1,125	1,122	1,122	1,131	1,141
원/100엔	1,009	996	989	989	1,007	999	1,022	1,030	1,016	1,017	1,022
원/유로	1,276	1,299	1,317	1,287	1,304	1,286	1,278	1,282	1,272	1,278	1,282
원/위안	167	166	169	169	165	163	167	165	166	168	170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8)]

-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갈등과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IMF는 금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미국 경제는 전분기 성장률이 둔화된 바 있으나, 주택판매 건이 증가하고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여전히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17	2018					2019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2.2	2.9	2.2	4.2	3.4	2.2	-	-
	산업생산(전기비)	2.3	3.9	0.6	1.1	1.3	0.9	-0.1	0.0
	소매판매(전기비)	4.7	4.9	0.6	1.5	1.1	0.2	0.7	-0.2
	실업률(계절조정)	4.4	3.9	4.1	3.9	3.8	3.8	4	3.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1	2.4	2.2	2.7	2.6	2.2	1.6	1.5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6.8	6.6	6.8	6.7	6.5	6.4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6	6.2	6.1	6.6	6	5.7	-	5.3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2	9	9.7	9	9	8.3	-	8.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6	2.1	2.2	1.8	2.3	2.2	1.7	1.5
일본	실질GDP(전기비)	1.9	0.8	-0.1	0.5	-0.6	0.5	-	-
	산업생산(전기비)	2.9	0.9	-1.1	1.2	-1.4	2	-3.4	1.4
	소매판매(전기비)	1.2	1.7	-0.4	0.5	0.9	0.9	-1.8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5	1	1.3	0.7	1.1	0.8	0.2	0.2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2.4	1.8	0.4	0.4	0.1	0.2	-	-
	산업생산(전기비)	2.9	1	-0.7	0	-0.1	-1.2	1.4	-
	소매판매(전기비)	2.4	1.6	0.2	0.7	0	0.9	0.9	0.4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5	1.8	1.3	1.7	2.1	1.9	1.4	1.5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19.4.12.)」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 중국 경제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월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일본 경제는 2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반등하였으나, 회복세가 미약하고 수출 역시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함.
- 유로존 경제는 제조업 PMI 지수가 2월부터 수축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3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성장세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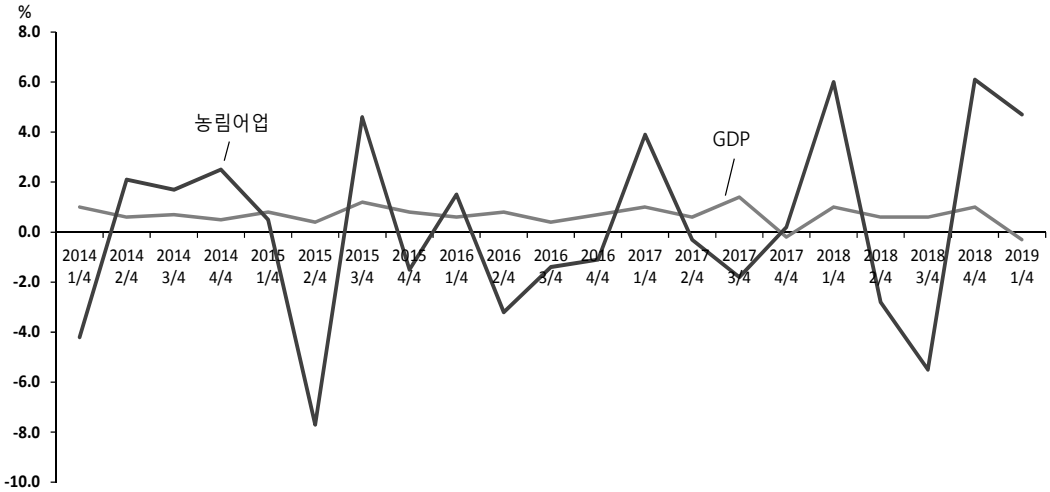
Ⅱ. 농촌경제 동향[1)]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19년 1/4분기 7조 6,49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7% 성장함.
  -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2조 6,78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0.3% 둔화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0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18년과 2019년 1/4분기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충현 연구원(goldbl@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19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6로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전분기 대비 2.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과 축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채소 및 기타농산물은 하락함.
-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8.7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전분기 대비 6.0% 상승함.
  - 서류는 고구마가 전년 동기 대비 2.7% 수준 상승하였으나 감자가 큰 폭(전년 동기 대비 40.9%) 하락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4% 하락함.
  - 서류를 제외한 미곡, 맥류, 두류/잡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9%, 50.4%, 17.5% 상승함.
- 채소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1.1로 전년 동기 대비 9.0% 하락,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엽채류는 부추를 제외한 배추, 양배추, 시금치 등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1% 하락, 전분기 대비 6.3% 하락함.
  - 조미채소류는 생강이 전년 동기 대비 156.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고추, 마늘, 양파, 파 가격이 모두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3% 하락, 전분기 대비 12.6% 하락함.
  - 과채류는 오이, 호박, 가지, 메론, 파프리카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수박, 딸기, 참외, 토마토는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 보다는 4.7% 상승함.
- 과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9.9로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 전분기 대비 20.9% 상승함.
  - 복숭아, 감귤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두 품목을 제외한 사과, 배, 포도, 단감, 자두, 매실 등은 상승함.

-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1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 전분기 대비 3.6% 하락함.
  - 오리와 돼지는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한우, 육우, 육계는 상승함.
- 기타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년 동기 대비 8.6% 하락, 전분기 대비 6.4%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17 연간	2018 연간	2017 4/4	2018 1/4	2018 4/4	2019 1/4	등락률(%)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7.6	108.5	104.6	110.8	109.2	111.6	0.7	2.2
곡물	280.1	94.5	118.2	99.4	114.2	121.4	128.7	12.7	6.0
-미곡	234.3	86.5	112.2	96.0	105.1	120.3	121.8	15.9	1.2
-맥류	5.5	95.0	93.4	87.6	95.6	94.5	143.8	50.4	52.2
-두류/잡곡	23.9	129.7	138.0	126.2	140.6	144.1	165.2	17.5	14.6
-서류	16.4	105.3	148.3	91.9	157.6	109.2	120.7	-23.4	10.5
청과물	406.5	121.8	118.2	118.5	127.0	116.9	121.9	-4.0	4.3
-채소	268.9	107.6	110.9	128.0	122.1	117.6	111.1	-9.0	-5.5
-과수	137.6	145.4	130.3	102.7	135.2	115.7	139.9	3.5	20.9
축산물	252.6	105.8	97.1	98.7	93.5	98.7	95.1	1.7	-3.6
-가축	185.1	101.2	101.6	98.0	96.0	102.6	101.2	5.4	-1.4
-기타	67.5	113.7	89.4	99.8	89.1	91.8	84.4	-5.3	-8.1
기타농산물	60.8	96.7	101.9	95.0	117.9	100.9	107.8	-8.6	6.8
-특용작물	42.4	92.9	94.3	86.7	94.9	94.8	98.1	3.4	3.5
-화훼	15.3	101.8	115.3	107.6	158.4	110.3	124.1	-21.7	12.5
-부산물	3.0	109.2	93.1	106.0	88.4	107.0	102.4	15.8	-4.3

자료: 통계청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9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3.1로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93.4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 전분기 대비 0.9% 상승함.
  - 이는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하고, 비료비, 사료비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종자종묘, 농약비가 각각 4.5%, 1.6% 상승하였기 때문임.
- 노무비지수는 117.5로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고, 경비와 자산구입비도 각각 4.2%, 3.6% 상승함.
  - 기계구입비는 104.5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4% 상승함.
  - 가축구입비는 130.4로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17 연간	2018 연간	2017 4/4	2018 1/4	2018 4/4	2019 1/4	등락률(%)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0.9	102.5	100.8	101.6	103.4	103.1	1.5	-0.3
가계용품	484.8	103.3	104.6	103.1	104.1	104.9	104.7	0.6	-0.2
재료비	250.6	93.2	92.7	92.8	92.9	92.6	93.4	0.5	0.9
-종자종묘	27.5	100.6	107.7	99.5	107.7	107.6	112.6	4.5	4.6
-비료비	39.0	75.2	72.6	75.2	72.6	72.6	72.6	0.0	0.0
-농약비	29.3	96.9	95.3	96.9	95.3	95.3	96.8	1.6	1.6
-사료비	136.0	95.4	94.4	94.9	94.4	94.4	94.4	0.0	0.0
-영농자재비	18.7	98.3	95.9	98.3	98.3	95.0	95.4	-3.0	0.4
노무비	45.0	108.8	114.8	111.0	111.5	117.0	117.5	5.4	0.4
경비	129.0	98.0	102.7	98.7	99.9	107.7	104.1	4.2	-3.3
-영농광열비	32.6	94.1	108.4	97.2	101.7	116.2	101.7	0.0	-12.5
-임차료	40.5	97.5	101.3	98.4	98.5	108.7	108.7	10.4	0.0
-농작업위탁비	42.5	102.0	101.7	100.9	100.9	103.9	103.9	3.0	0.0
-판매자재비	13.3	96.5	96.5	96.5	96.5	96.5	96.5	0.0	0.0
자산구입비	90.6	109.4	111.6	108.4	109.7	112.1	113.6	3.6	1.3
-기계구입	58.9	101.3	104.2	101.7	104.1	104.1	104.5	0.4	0.4
-가축구입비	31.7	124.4	125.2	120.9	120.2	126.9	130.4	8.5	2.8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19년 1/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98.6임.
- 2019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8.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악화, 전분기 대비 2.5% 개선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하였으나 농가투입재가격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폭(1.1%)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 또한 악화됨.

농업경영조건지수

구 분	2017	2018	2018	2019	등락률(%)	
	4/4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04.6	110.8	109.2	111.6	0.7	2.2
농가구입가격(B)	100.8	101.6	103.4	103.1	1.5	-0.3
농업투입재가격(C)	96.7	97.5	99.2	98.6	1.1	-0.6
농가교역조건(A/B×100)	103.8	109.1	105.6	108.2	-0.7	2.5
농가경영조건(A/C×100)	108.2	113.7	110.1	113.2	-0.4	2.8

주: 농업투입재가격은 농가구입가격지수에서 농업용품(가축류 제외)과 농촌임료금의 가중평균임.

3. 농림어업 취업자

- 2019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15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5.3% 감소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4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73만 3천 명, 여성은 13.3% 증가한 42만 5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7.5%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0.9% 감소한 150만 1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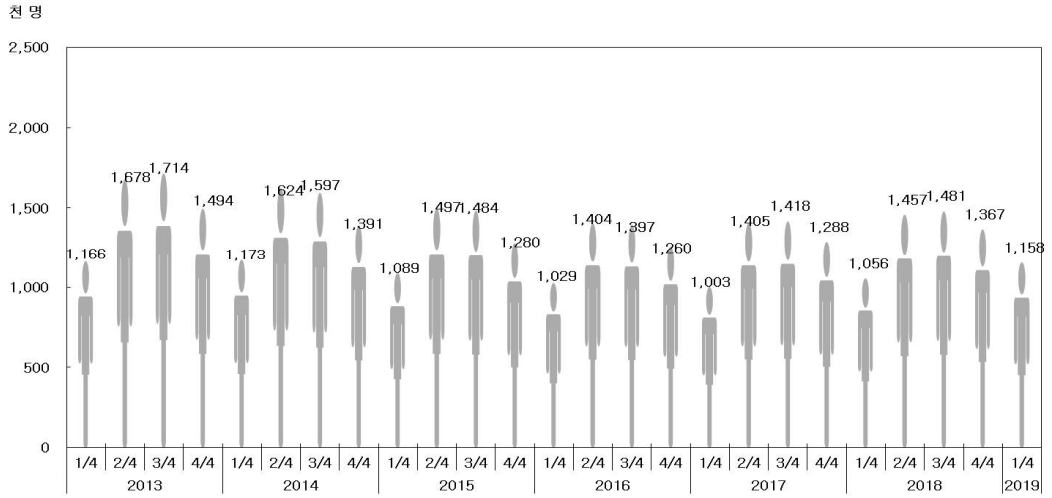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18		2019	증감률(%)	
		1/4	4/4	1/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업자	전산업	26,283	26,971	26,461	0.7	-1.9
	(계절조정)	(26,842)	(26,883)	(27,023)	0.7	0.5
	농림어업	1,056	1,367	1,158	9.7	-15.3
	(계절조정)	(1,327)	(1,382)	(1,455)	9.6	5.3
	남성	682	799	733	7.5	-8.3
	여성	375	568	425	13.3	-25.2
	농가	1,396	1,684	1,501	7.5	-10.9
	농가남성	840	941	884	5.2	-6.1
	농가여성	556	743	617	11.0	-17.0

주: (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8년 3/4분기 148만 1천 명, 4/4분기 136만 7천 명, 2019년 1/4분기 115만 8천 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92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함.
  -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으나 곡류 및 과실류가 각각 42.3%, 13.3%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은 1.1% 감소한 반면, 축산물은 63.8% 증가함.
  - 축산물의 경우, 포유육류는 수출이 미미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감소하였으며, 가금육류는 전년 동기 대비 138.3% 증가함.
  -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52	1,787	882	1,652	1,173	1,829	922	1,654	4.5	0.1
농산물	753	1,589	717	1,476	793	1,550	710	1,445	-1.1	-2.1
-곡류	13	8	21	23	14	12	12	9	-42.3	-60.5
-과실류	43	97	32	71	44	120	28	72	-13.3	1.7
-채소류	36	101	33	105	31	99	35	111	8.7	5.5
축산물	21	86	23	80	36	118	38	102	63.8	27.5
-포유육류	0	3	0	3	0	3	0	2	-36.7	-14.6
-가금육류	4	7	6	9	11	15	15	17	138.3	84.6
-낙농품	8	32	8	30	10	45	8	32	-1.9	8.8
임산물	178	112	142	96	344	161	174	108	22.8	11.8
수 산 물	145	592	148	559	191	617	172	595	15.8	6.5
전 체	1,097	2,379	1,030	2,211	1,365	2,446	1,093	2,250	6.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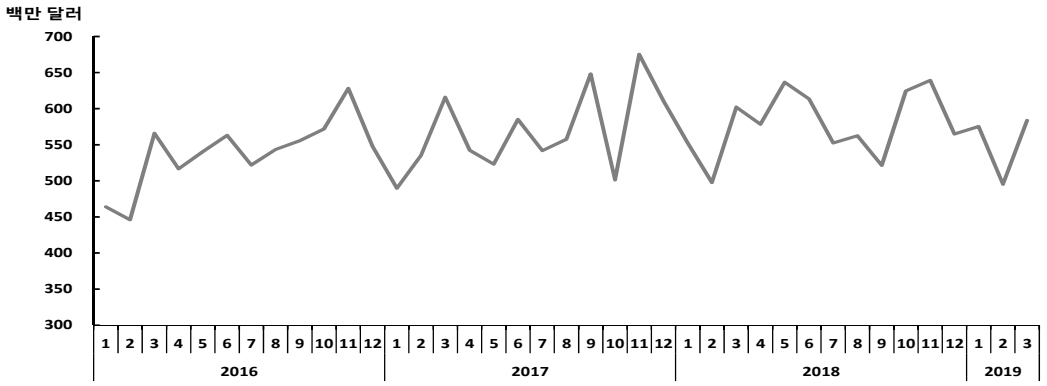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16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과실과 채소류가 전년 대비 각각 1.7%, 5.5% 증가하였으나 곡류가 큰 폭으로 감소(60.5%)하여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가 14.6% 감소하였으나 가금육류와 낙농품이 각각 84.6%, 8.8%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임산물은 11.8% 증가함.

• 2019년 3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5억 8,36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하고, 2월 대비 17.8% 증가함.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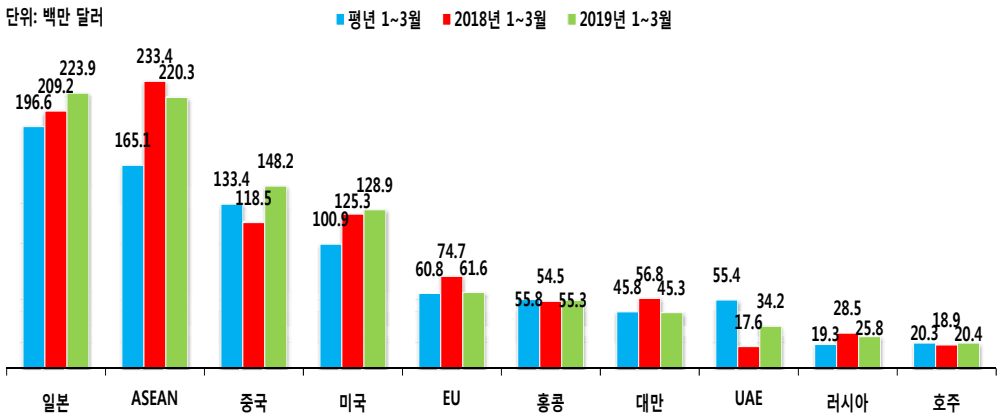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분기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0억 7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1.6% 증가한 6억 1천만 달러임.
- 주요 수출대상국 중 중국, 미국, 호주 등으로의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중 대중국 누적수출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19년 2/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90.7로 전분기(105.6) 대비 큰 폭(△16.4%)으로 하락하여 농수산물 수출 경기가 악화될 전망임[2].
- 이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바이어의 가격인하 요구 등에 의한 수출 애로 요인에 기인한 것임.

2) 한국무역협회, '2019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2019.03.28).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19년 1분기」.

4.2. 수입 동향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34만 1천 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7% 감소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축산물은 4.0% 증가하고, 임산물은 2.4% 감소함.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함.
  - 농산물과 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2%, 6.3%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5.1%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는 녹두, 팥, 대두 등 두류와 감자, 옥수수, 호밀 등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과실류는 키위가 전년 동기 대비 132.4% 증가하였으나 오렌지, 유자, 바나나,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의 수입액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함.
- 2019년 3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29억 3,627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하고, 2월 대비 26.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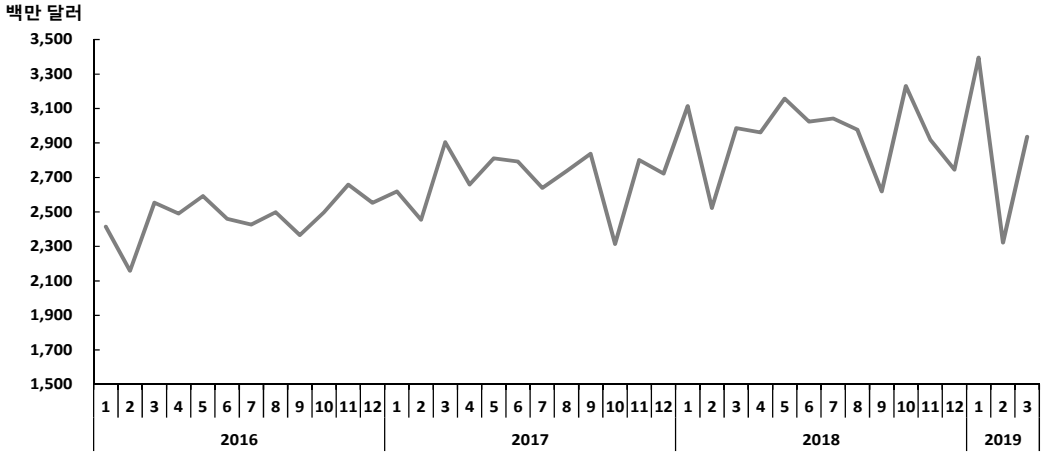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7		2018				2019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4		1/4		4/4		1/4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174	7,837	13,429	8,625	14,289	8,896	13,341	8,655	-0.7	0.3
농 산 물	8,239	4,514	8,443	4,842	8,944	5,120	8,445	4,849	0.0	0.2
-곡류	3,615	775	3,820	906	3,855	960	3,754	917	-1.7	1.3
-과실류	233	343	333	564	265	419	314	505	-5.7	-10.5
-채소류	351	240	324	234	329	253	311	225	-4.1	-4.1
축 산 물	366	1,500	462	1,887	423	1,782	481	2,006	4.0	6.3
-포유육류	215	933	288	1,274	257	1,131	299	1,367	3.7	7.2
-가금육류	37	90	41	89	46	118	47	111	14.9	24.7
-낙농품	62	216	77	272	68	231	79	265	2.4	-2.4
임 산 물	4,569	1,824	4,524	1,896	4,922	1,994	4,416	1,799	-2.4	-5.1
수 산 물	1,531	1,403	1,725	1,502	1,970	1,736	1,272	1,444	-26.3	-3.9
전 체	14,705	9,240	15,154	10,128	16,259	10,631	14,613	10,099	-3.6	-0.3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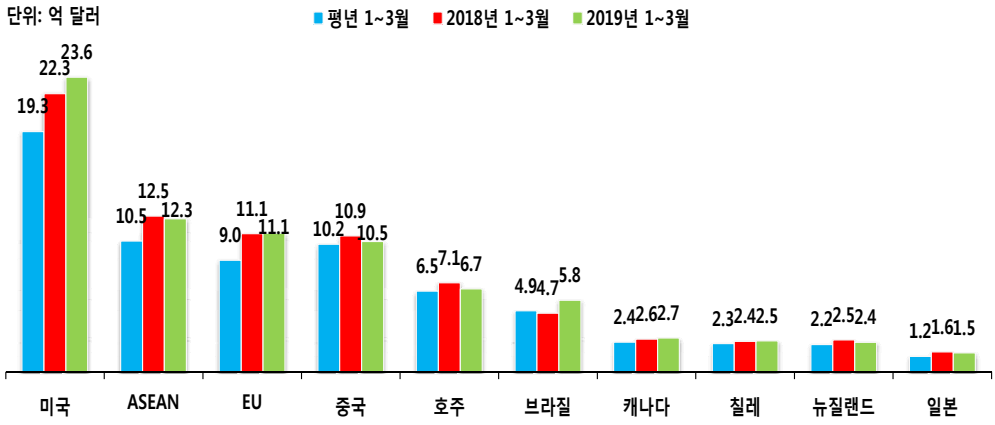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분기 전체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86억 5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0.1% 감소한 74억 달러임.

- 미국, EU, 칠레,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농축산물 누적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그중 미국산 누적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함.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19년 1분기」.

4.3. 순수입 동향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41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773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44만 3천 톤임.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70억 달러임.
  - 농산물과 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 5.3% 증가하였으나 임산물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8년 1/4분기		2019년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547	6,973	12,419	7,000	-1.0	0.4
농 산 물	7,726	3,366	7,735	3,404	0.1	1.1
축 산 물	439	1,808	443	1,904	0.9	5.3
임 산 물	4,382	1,800	4,241	1,692	-3.2	-6.0
수 산 물	1,576	943	1,100	849	-30.2	-10.0
전 체	14,123	7,917	13,519	7,849	-4.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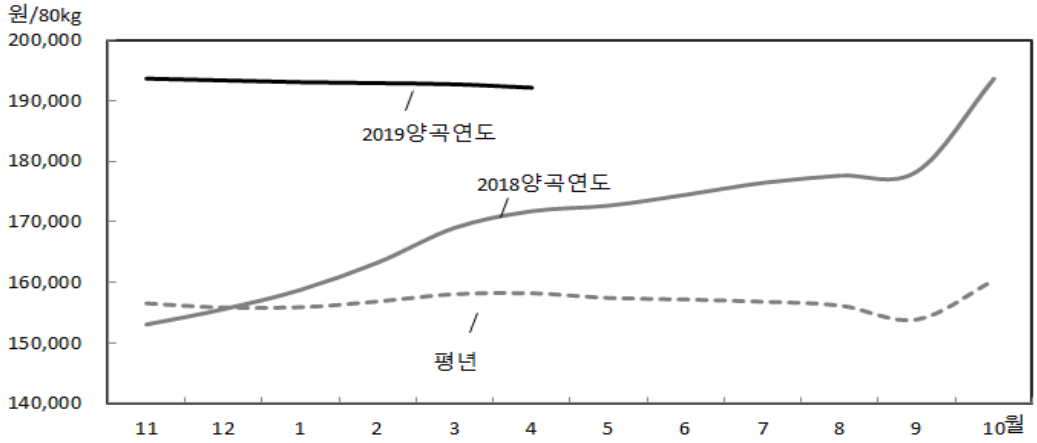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1)]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최근 5개년(2014~2018양곡연도) 산지 쌀 가격의 절단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 2019년 1/4분기 동향
  - 산지 쌀 가격은 수확기 원료곡 매입가격이 높았던 대부분의 산지유통업체들이 가격인하를 자제함에 따라 공급초과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 2월과 3월 쌀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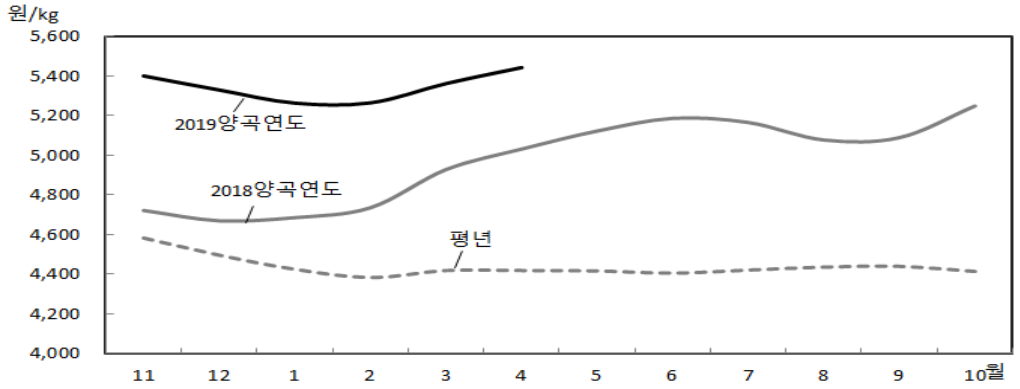
1)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박성진 부연구위원(seongjin20@krei.re.kr), 김종인 부연구위원(jongin@krei.re.kr), 조남욱(ukjo@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지선우(bsn02@krei.re.kr), 신기석(k.shin@krei.re.kr), 강두현(kdh0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1/4분기에 높은 가격 등으로 산지유통업체의 정곡 및 조곡 판매 둔화세가 지속되자, 재고 부담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저가에 출하함에 따라 산지 쌀값은 4월 들어 수확기 이후 하락폭 확대(전월 대비 -0.3%)
  - 재고 부담으로 향후 판매가를 인하하려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분기 가격 하락폭은 1분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산지유통업체의 월 평균 재고 소진 수준(과거 5~8월)을 고려할 경우, 현재 재고(4월 20일 기준)는 단경기내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

1.2. 콩

국산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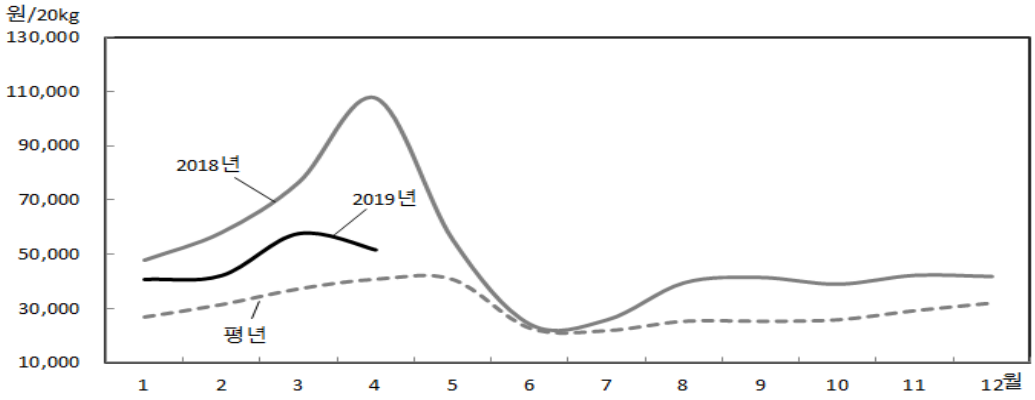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4~2018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2019년 1/4분기 국산 콩 도매가격은 5,297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상승하였으나 전 분기 대비 0.6% 하락
  - 1/4분기 콩 가격은 12월 이후 출하가 본격화 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부 유통 상인들의 출하 조절 등으로 시장 유통물량이 줄어 2월 이후 강보합세 지속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국산 콩 가격(백태 상품)은 평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수매 저조에 따른 정부 재고 물량 부족이 더해져 가격상승을 기대한 유통 상인들의 출하 조절 등으로 전 분기 대비 높은 수준이 될 전망
  - 재배면적은 수확기 가격 강세로 재배의향이 높은 반면, 높은 쌀값으로 인한 논콩 재배의향 감소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친 5만 2,223ha로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4~2018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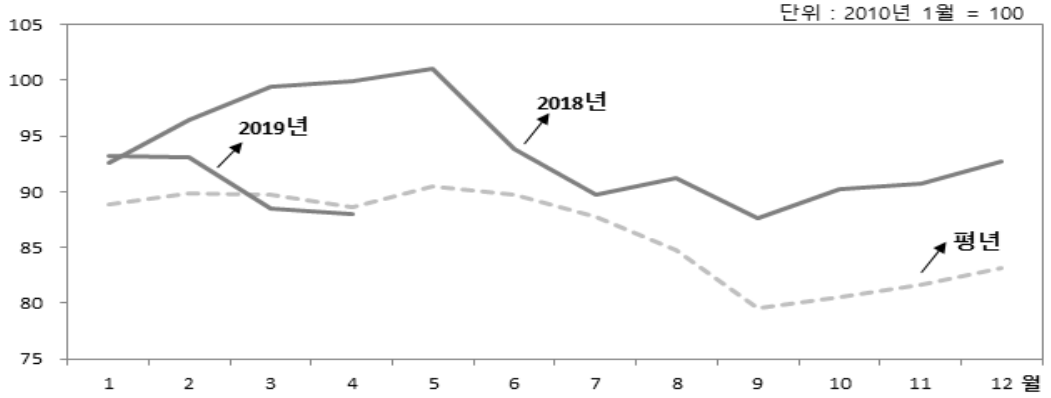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수미(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46,814원/2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0% 하락하였으나, 평년 동기 대비 47.0% 높은 수준
  - 1/4분기 감자(수미) 가격은 가을감자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2월에는 시설 봄감자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약세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감자 도매가격(수미 상품)은 시설 봄감자와 저장 고랭지감자 출하량이

증가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노지 봄감자 출하가 지연되어 가격 하락폭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전년 주출하기 가격 강세로 올해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5%, 평년 대비 8.4% 증가한 3,654ha로 전망

1.4. 국제곡물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 2019년 1/4분기 동향
  - 2019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0년 1월=100)는 남미 기상악화 우려에 따른 콩 가격 상승으로 전 분기 대비 0.4% 상승한 91.6임.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2/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주요 밀 생산국의 겨울밀 작황이 양호하고, 최근에 남미의 기상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옥수수, 콩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 분기 대비 2.2% 하락한 89.6으로 예상됨.
  - 2019년 4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주요 밀 주산지의 겨울밀 작황 양호, 미국산 옥수수 재고량 증가 전망, 남미국가의 옥수수·콩 생산량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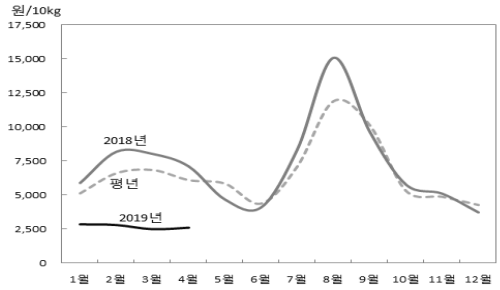
발표로 전월 대비 1.2% 하락한 88.3임.

- 4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2.04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정' 단계가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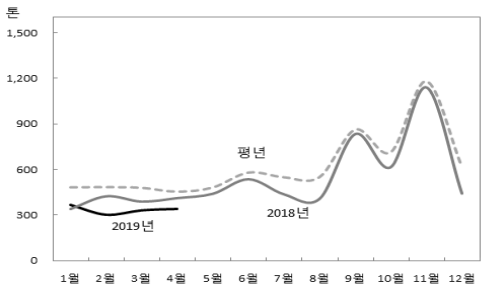
2. 엽근채소[2)]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3% 낮은 2,700원/10kg임.
  - 1/4분기 가격은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수준
    * 2019년 가격: (1월) 2,840원/10kg, (2월) 2,790원, (3월) 2,490원
    * 1/4분기 가격: (2019년) 2,700원/10kg, (2018년) 7,340원, (평년) 6,180원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적으나, 평년보다는 많은 24만 4천 톤 내외 전망

2)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한은수(hanes012@ 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임효빈(hyobin@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박수은(pse548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시설봄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3%, 22% 감소한 4만 3천 톤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4% 감소하나, 평년보다는 8% 증가한 2,400ha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8% 감소하나, 평년 보다는 7% 증가한 20만 1천 톤

– 2/4분기 배추 출하량은 봄배추 재배면적 및 단수 증가로 평년보다 25%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5,260원/10kg) 및 평년(5,430원) 보다 낮을 전망

- 2019년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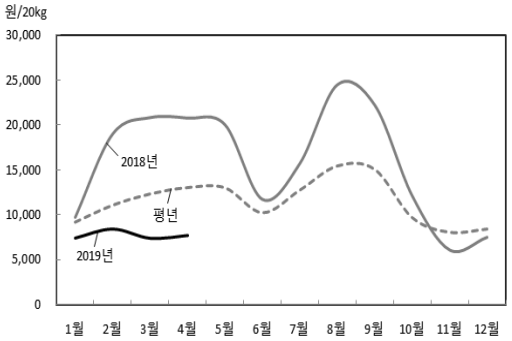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0%, 8% 감소할 전망

* 최근 연작피해가 심해지는 강원 삼척, 태백, 정선을 중심으로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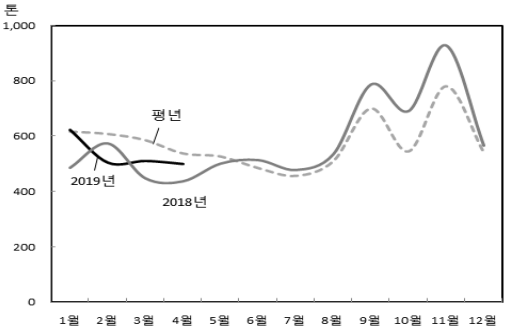
* 주요 대체작목으로는 높은 온도에서 재배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무, 양배추, 감자 등으로 조사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낮은 7,750원/20kg임.

– 1/4분기 가격은 월동무 과잉 생산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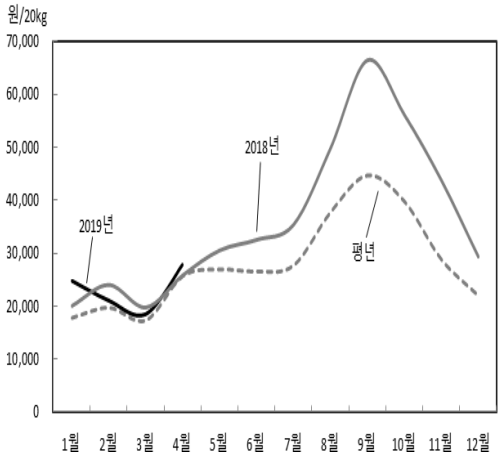
* 2019년 가격: (1월) 7,440원/20kg, (2월) 8,390원, (3월) 7,420원
* 1/4분기 가격: (2019년) 7,750원/20kg, (2018년) 16,500원, (평년) 11,220원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봄무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6%, 11% 감소한 10만 7천 톤 전망
    * 시설봄무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42%, 5% 감소한 1만 6천 톤
    * 노지(터널 포함)봄무 생산량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9%, 12% 감소한 9만 1천 톤
    * 봄무는 생육기 큰 일교차, 일조량 부족 등으로 초기 작황은 다소 부진한 상황
  - 2/4분기 무 출하량은 봄무 생산량이 감소하나, 월동무 저장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25%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17,490원/20kg)과 평년(12,120원)보다 낮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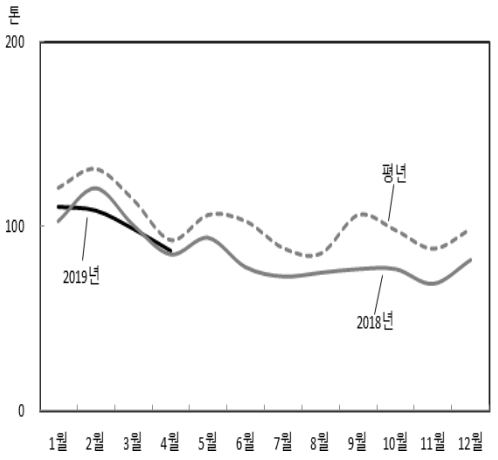
- 2019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
  - 2019년 고랭지무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2% 내외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지봄무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준고랭지1기작을 중심으로 산지유통인의 계약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21,500원/20kg임.
  - 1/4분기 가격은 파종·생육기 기상변화에 따른 겨울당근 출하량 감소로 작년과 평년보다 높은 수준
    - * 2019년 가격: (1월) 24,850원/20kg, (2월) 21,110원, (3월) 18,530원
    - * 1/4분기 가격: (2019년) 21,500원/20kg, (2018년) 21,160원, (평년) 18,340원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봄당근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5%, 6% 증가한 2만 9천 톤 전망
    -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6% 증가한 913ha
    - * 단수는 작년보다 13% 증가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3,206kg/10a
    - * 봄당근은 4월 저온의 영향으로 일부 생육 지연되었으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
  - 2/4분기 당근 출하량은 겨울당근 저장 출하량 감소하나, 봄당근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9%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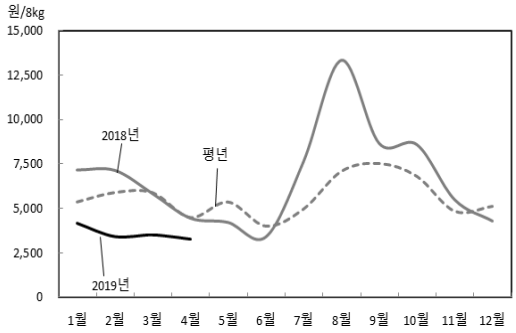
- 2/4분기 당근 도매가격은 작년(29,530원/20kg)과 평년(26,390원)보다 낮을 전망

• 2019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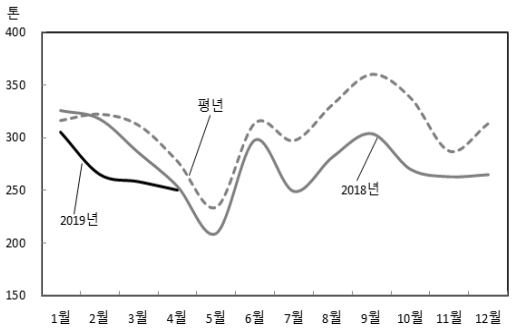
- 2019년 고랭지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9~10월)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14%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은 2014~2018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3,690원/8kg임.
- 1/4분기 가격은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낮은 수준

  * 2019년 가격: (1월) 4,170/20kg, (2월) 3,400원, (3월) 3,490원

  * 1/4분기 가격: (2019년) 3,690/8kg, (2018년) 6,710원, (평년) 5,710원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1% 증가한 7만 4천 톤 전망

  * 재배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9% 감소한 1,371ha

* 단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 11% 증가한 5,381kg/10a

* 봄양배추 작황은 생육기(4월) 적절한 기온으로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

- 2/4분기 양배추 출하량은 겨울양배추 저장과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8%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 2/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작년(4,020원/8kg)과 평년(4,600원)보다 낮을 전망

• 2019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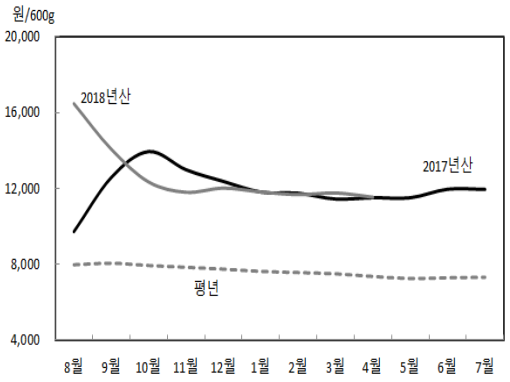
- 2019년 고랭지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7~9월)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14%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로 배추에서 양배추로 전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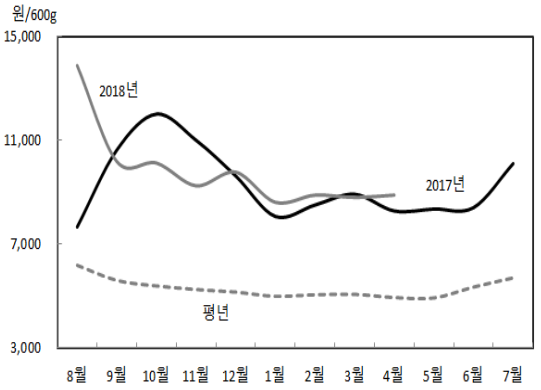
3. 양념채소[3)]

3.1.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화건 산지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3년 8월~2018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3)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원태 전문연구원(wtkim@krei.re.kr), 신성철 (ssc0729@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김라이(kimlai@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양진석(mozzi@krei.re.kr)연구원이 작성함.

- 2019년 1/4분기 동향
  - 건고추(화건) 1/4분기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나 평년 동기보다 54% 높은 1만 1,741원,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 평년 동기보다 74% 높은 8,768원이었음.

    * 도매가격: (금년) 11,741원/600g, (전년) 11,657원, (평년) 7,553원

    * 산지가격: (금년) 8,768원/600g, (전년) 8,498원, (평년) 5,028원
  - 서안동농협 고추 공판장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786톤) 대비 두 배 많은 652톤임.
  - 높은 가격을 기대한 저장고추 출하조절과 중도매인들의 물량확보로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었음.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건고추 화건 상품 600g당 4월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1만 1,531원임. 화건 상품 평균 산지가격은 중도매인들의 재고 확보를 위한 구매 증가로 전년보다 7% 높은 8,890원임.
  - 건고추 2/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재고량이 많고 품위가 낮은 건고추 위주의 거래로 2018년 2/4분기(1만 1,650원/600g)와 1/4분기(1만 1,741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본부 조사치와 모형추정결과, 2019년산 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로 2018년산보다 2~5% 증가하나 평년보다 5~7%감소한 2만 9,510~3만 240ha로 전망됨.

2019년산 고추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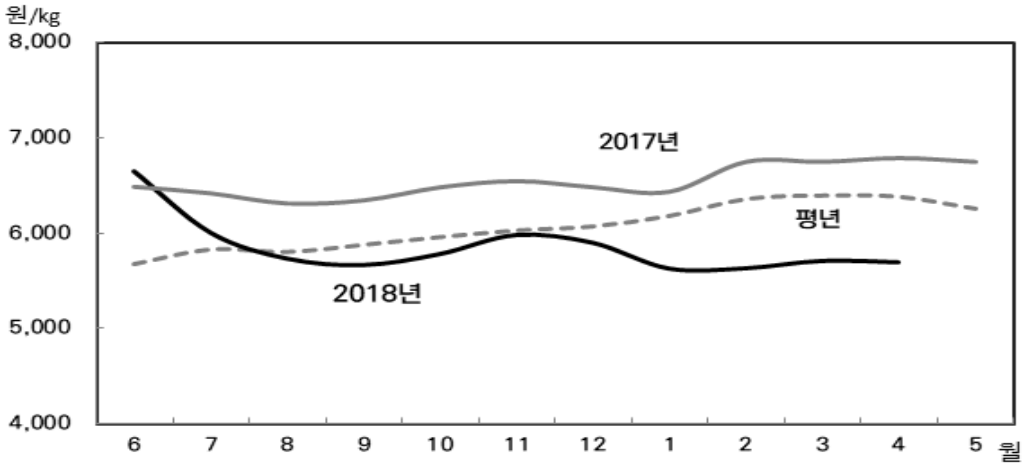
단위: ha, %

2019년산 추정 재배면적	증감률	
	2018년산 대비	평년 대비
29,510~30,240	2.4~4.9	-7.3~-5.0

자료: 농업관측본부 추정치

3.2. 마 늘

깐마늘 도매가격 동향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3년 6월~2018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깐마늘 1/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2018년산 저장마늘 품위 저하에 따른 출고의향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15% 낮은 수준이었음.
    * 1/4분기 평균 도매가격: (금년) 5,658원/kg, (전년) 6,648원/kg, (평년) 6,313원/kg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2018년산 출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16% 낮은 kg당 5,700원이었음.
    * 4월 도매가격: (금년) 5,696원/kg, (전년) 6,752원/kg, (평년) 6,258원/kg
  - 2019년 2/4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2018년산 저장마늘 품위 저하와 기상여건 호조로 2019년산 햇마늘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

2018년산 국내산 난지형 마늘 추정 재고량

연산		입고량(톤)	출고량(톤)	재고량(톤)
2018		96,623	76,439	17,435
2017		95,889	70,376	22,797
평 년		107,000	92,000	13,515
증감률 (%)	전년	0.8	8.6	-23.5
	평년	-9.7	-16.9	29.0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18년산 11.3%, 2017년산 8.6%, 평년 8.7%)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고, 국내산 수매·비축 통(피)마늘 물량(2017년 2,000톤, 2018년 2,049톤)이 포함되었으며, 정부 TRQ는 미포함.
2) 평년 입고량과 재고량은 냉장협회의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임.
3) 재고량과 출고량은 4월 말 기준임.
자료: 농업관측본부, 저장업체 표본 조사치

- 2019년산 마늘 생산 동향
  - 2019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했으나, 평년 대비 17% 증가한 27,689ha(통계청, 4. 19. 발표).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5,304ha, 난지형은 2% 감소한 22,605ha
  - 2019년산 마늘 생육은 전·평년보다 양호한 수준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 결과(4. 29.), 2019년산 마늘 생육은 평년 대비 '좋음' 37%, '비슷' 54%, '나쁨' 9%
    * 월동기 기상이 양호했으며, 생육기 기상도 호조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육 속도가 빠른 것으로 조사

2019년산 마늘 평년 대비 생육 상황

단위: %

구분	좋음	비슷	나쁨	전체
경기·강원	15.8	78.9	5.3	100.0
충청	27.4	60.7	11.9	100.0
호남	41.2	51.2	7.6	100.0
영남	42.8	48.0	9.2	100.0
제주	29.9	59.7	10.4	100.0
전체	36.8	54.0	9.2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9년산 마늘 단위당 수확량은 평년 대비 증가 전망
  * 2019년산 마늘 10a당 예상단수는 조사치를 활용할 경우 1,339kg, 농업관측본부 단수예측모형은 1,307kg 추정
- 2019년산 마늘 생산량 평년 대비 19~22% 증가 전망
  * 2019년산 마늘 예상 생산량은 단수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36만 2천~37만 1천 톤 내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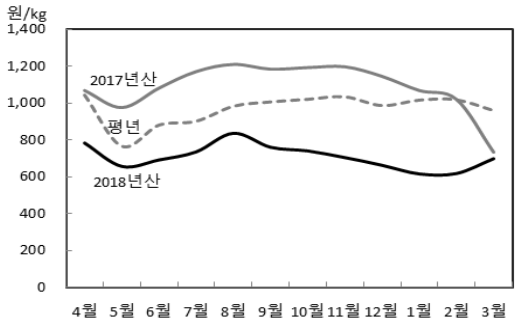
2019년산 마늘 추정 생산량

연산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 톤)
2019		27,689	1,307~1,339	361.9~370.7
2018		28,351	1,170	331.7
평 년		23,728	1,285	304.9
증감률 (%)	전년	-2.3	11.7~14.4	9.1~11.8
	평년	16.7	1.7~4.2	18.7~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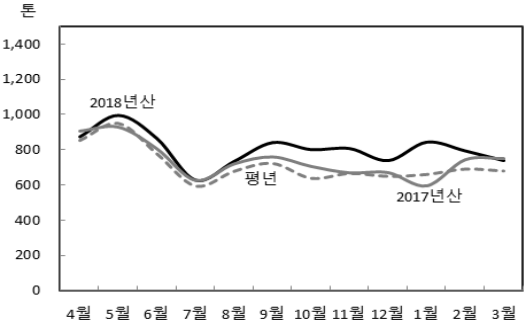
주: 2018년산 단수와 생산량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3.3.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3년 4월~2018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국내산 양파 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31% 낮은 상품 kg당 650원이었음.
  - 1~2월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12월(670원) 대비 7% 하락한 620원이었음. 3월 가격은 저장양파 부패율 증가로 출고량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3% 상승한 700원이었음.

    * 1/4분기 월별 일평균 출하량: (1월) 841톤, (2월) 792톤, (3월) 736톤

- 2019년산 양파 동향 및 전망
  - 2019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8%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3% 증가
  - 4월 말까지의 생육상황을 감안할 경우 2019년산 양파 생산량은 145~149만 톤으로 평년보다 13% 내외 많을 전망
  - 품종별로는 조생종은 평년보다 15% 내외 많은 19∽20만 톤, 중만생종은 평년보다 13% 내외 많은 126∽130만 톤으로 전망됨.

2019년산 양파 추정 생산량

단위: 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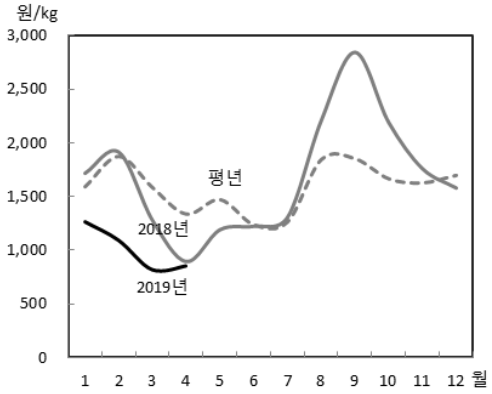
연산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9	21,756	6,681~6,869	1,454~1,494
2018	26,426	5,756	1,521
평 년	21,120	6,142	1,297
전년 대비	-17.7	16.1~19.3	-4.4~-1.8
평년 대비	3.0	8.8~11.8	12.1~15.2

주: 2019년산은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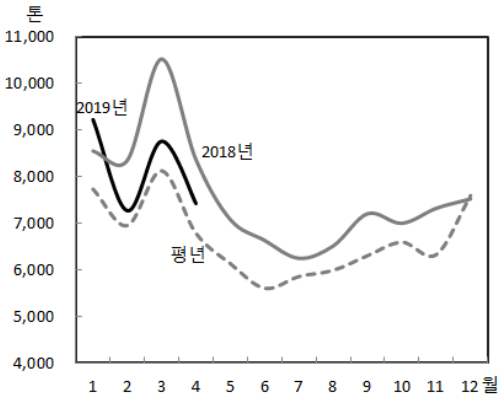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상품 kg당 평균도매 가격은 910원으로 전년(790원)과 평년(880원) 대비 각각 16%, 3% 상승함.
  - 상순 가격은 1,010원이었으나, 이후 조생종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반입량이 증가하여 중순 및 하순 가격은 각각 970원, 730원으로 하락세를 보임.
  - 5~6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으나 정부의 수급안전 대책 추진으로 평년(720원) 대비 보합세가 전망된다.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4년 1월~2018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대파 1/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1,060원(중품 83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 37% 낮았음.
    * (금년) 1,061원/kg, (전년) 1,636원, (평년) 1,681원
    * (1월) 1,269원/kg, (2월) 1,095원, (3월) 818원
  - 1~3월 평균 반입량은 겨울대파 주 출하지인 전남지역의 작황 호조로 단수가 증가하여 평년 대비 13% 많았음.
  - 3월 가격은 겨울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하순부터 가격이 낮아졌던 전년보다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전환하였음.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900원)보다 낮은 850원이었음.
  - 4월 가격은 전남지역 포전정리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로 단수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음.

- 2/4분기 가격은 금년 기상 여건 호조로 출하량이 많아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4~6월 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출하기 대파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노지대파, 강원 고랭지대파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겨울대파 가격약세로 호남의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6월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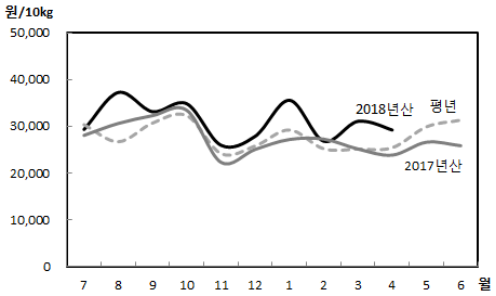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전남	전북		
3.8	4.0	1.6	-4.8	-4.7	-5.5	-1.9

자료: 농업관측본부, 4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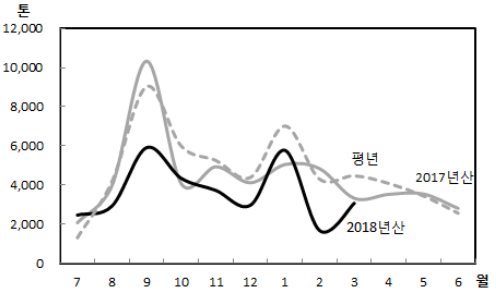
4. 과일[4)]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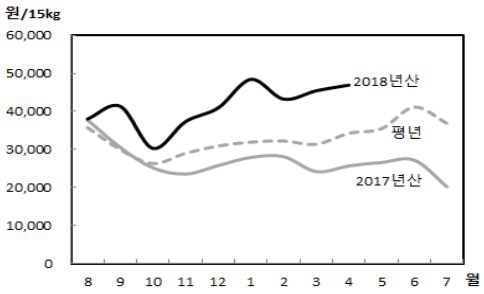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3~17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후지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저장량 감소로 반입량이 20% 줄어 전년보다 18%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1,200원이었음.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후지 도매가격은 저장량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 전년보다 23%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9,200원이었음.
  - 5월 출하량도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8% 감소하고, 6월 이후에도 6%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은 당분간 전년 대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재배면적 추정
  -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3만 3,037ha로 추정됨. 성목면적은 면적이 늘었던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보다 1% 증가하였으나, 유목면적은 최근 가격 약세로 신규 식재가 줄어 전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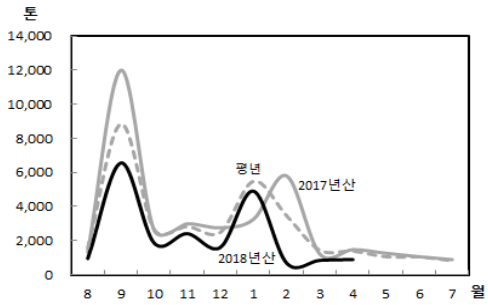
4)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홍승표(cfc8214@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 (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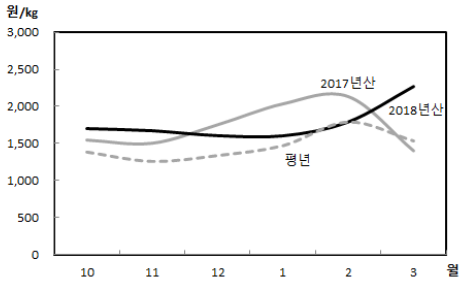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3~17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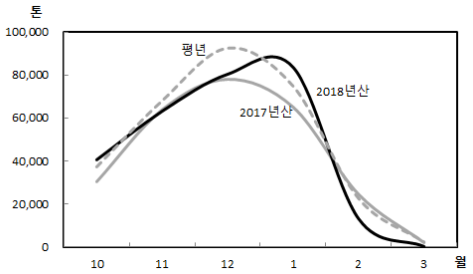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반입량 감소(전년 대비 –37%)로 전년보다 71%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5,700원이었음.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6,900원이었음. 5월 이후 출하량도 저장량이 적어 전년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임. 특히, 대과 및 상품과가 적어 등급 간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재배면적 추정
  - 2019년 배 재배면적은 1만 124ha로 전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성목면적은 농가고령화와 도시개발(도로 수용), 과원 원지 정비, 타 작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한 9,494ha로 추정됨. 반면,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기타품종(신화, 창조, 화산, 황금 등)의 신규 식재 및 품종 갱신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보다 2% 증가한 630ha로 추정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



감귤 출하량 동향



주: 평년은 2013~2017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9년 1/4분기 동향
  - 1/4분기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은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2% 높은 kg당 1,890원이었음.
  - 월별로 보면, 1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전년 대비 29%)로 전년보다 21% 낮은 1,600원이었음. 이는 수확기 산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저장성이 저하되었고, 올해 설 성수기가 전년보다 10일 가량 빨라 출하가 앞당겨졌기 때문임. 이로 인해 2~3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50% 줄어 2~3월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5% 상승한 2,030원이었음.
- 2019년 2/4분기 전망
  - 5월 하우스온주 출하량은 극조기 가온 재배 농가가 증가한데다, 큰 일교차로 착색이 빨라 출하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월 이후에는 추석 출하 대비 극조생 보조 가온 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3%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재배면적 추정
  - 2019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2만 21ha로 추정됨. 품종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와 월동온주(비가림)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 감소한 반면, 하우스온주는 전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하우스온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다른 온주 감귤류보다 시세가 좋아 작형을 전환한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임. 만감류 중에서는 한라봉과 천혜향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 감소한 반면, 레드향과 기타 만감류(황금향, 카라향)의 재배면적은 각각 5%, 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4. 포도

- 2019년 재배면적 추정
  - 2019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만 3,191ha로 추정됨. 작형별로는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1만 1,272ha, 시설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증가한 1,918ha로 파악됨.
- 2019년 2/4분기 전망
  - 4~6월 포도 출하면적은 가온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시기별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재배면적 감소로 4~5월 출하면적이 전년보다 5%, 6월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7월 이후 시설포도 출하면적은 무가온 시설면적 및 만생종인 샤인머스캇의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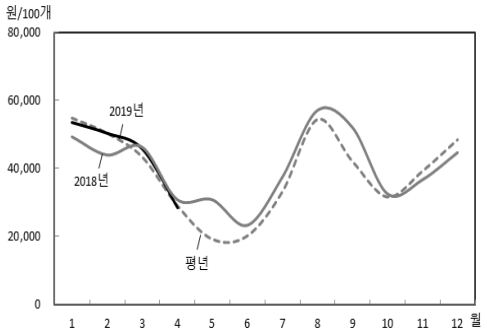
4.5. 복숭아

- 2019년 재배면적 추정
  - 2019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증가한 2만 1,366ha로 추정됨.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 및 고령목의 품종 갱신으로,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보다 각각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품종별 재배면적은 유모계와 천도계 모두 전년보다 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유모계는 품질(향)이 우수한 황도 계열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천도계의 경우 최근 높은 가격으로 유모계 주산지에서도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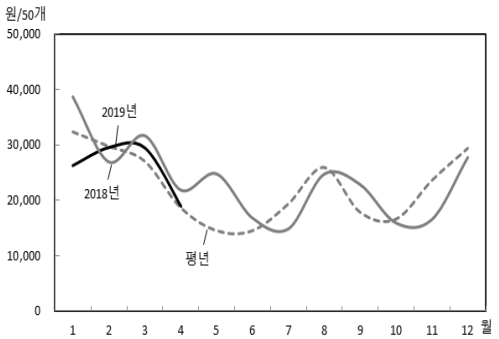
5. 과채[5)]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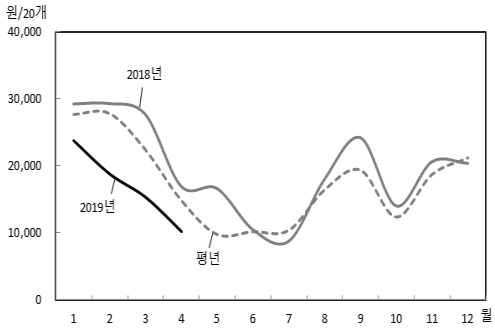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월 5만 3,500원, 2월 5만 300원, 3월 4만 5,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4만 6,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 상승하였음.
  - 1/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의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하였음.
  -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상품 50개에 1월 2만 6,200원, 2월 2만 9,500원, 3월은 2만 9,4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2만 8,4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하락하였음.
  - 1/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전남 순천·구례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하였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윤종열 부연구위원(jyyoon0712@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이연옥(superior1@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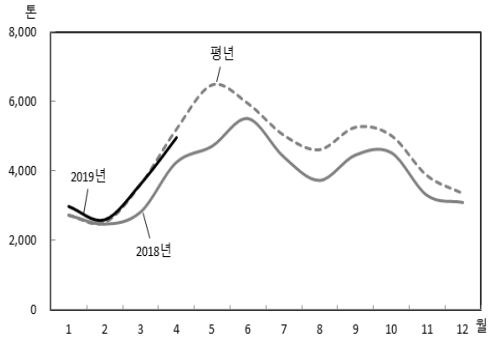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7% 낮은 상품 100개에 2만 8,500원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인 충남 천안에서 작황이 좋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4%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3% 낮은 상품 50개에 1만 9,000원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인 전남 순천에서 작황이 좋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6%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충청과 전남지역의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애호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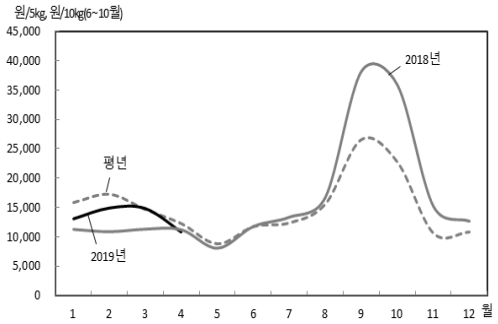
- 2019년 1/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월 2만 3,700원, 2월 1만 8,800원, 3월에는 1만 5,3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9,3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하락하였음.

- 1/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경남 진주의 작황이 좋아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였고, 소비대체재인 쥬키니호박 반입량도 10%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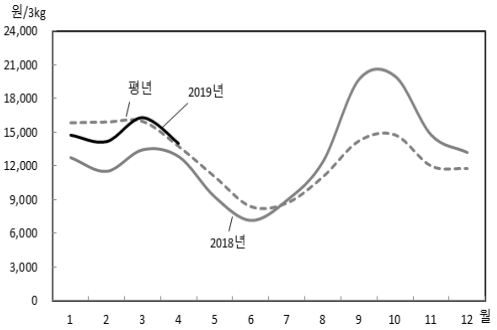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애호박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40% 낮은 상품 20개에 1만 200원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인 경남 진주의 작황이 좋아 반입량이 전년보다 17%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애호박 출하량은 충청지역의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3.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월 1만 3,100원, 2월 1만 4,900원, 3월 1만 4,8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8% 높은 1만 4,300원이었음.
- 1/4분기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2% 감소하였음. 이는 전년

출하기 가격 약세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정식 초기 기상여건 악화로 작기를 일찍 종료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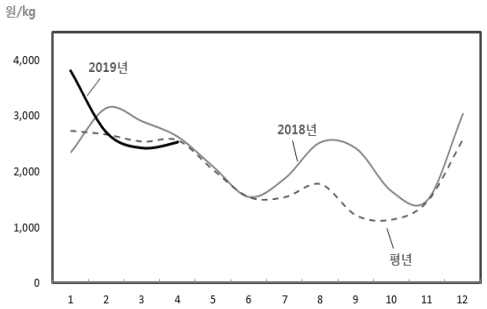
- 대추형 방울토마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3kg 상자에 1월 1만 4,800원, 2월 1만 4,200원, 3월 1만 6,3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5,1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높았음.
- 대추형 방울토마토 1/4분기 반입량은 동절기 유류비 부담으로 정식시기를 늦춘 농가들이 많았고, 정식 이후 기상 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보다 4% 적었음.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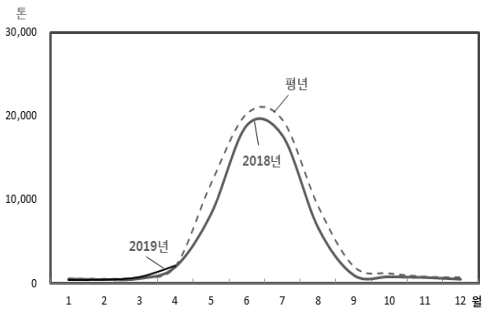
- 4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동기보다 3% 낮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900원이었음.
- 5~6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시설면적 확대 및 일반토마토로의 작목 전환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9% 높은 상품 3kg 상자에 1만 4,000원이었음. 이는 주 출하지인 충청·호남지역에서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가 원활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 행사로 시장 반입량이 감소한데다, 소비대체재인 원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 감소로 대추형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임.
- 5~6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충청·호남지역의 신규 시설면적 증가와 최근 시세 상승으로 대추형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5.4.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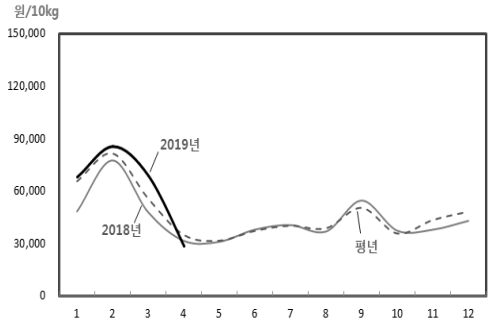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kg에 1월 3,810원, 2월 2,710원, 3월 2,43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7% 높은 2,980원이었음.
  - 수박 1/4분기 반입량은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으로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보다 2%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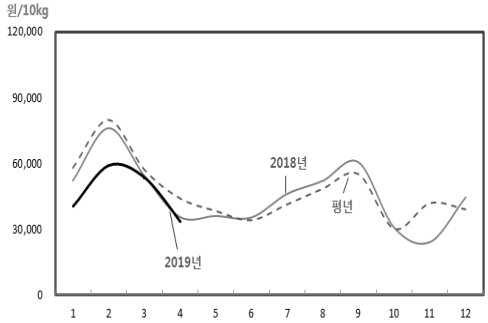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수박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보다 4% 낮은 상품 1kg에 2,530원이었음.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하였음. 이는 출하면적은 전년과 비슷하였으나, 경남지역의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5월 수박 출하량은 마늘·양파 등 작목 전환으로 인한 정식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6월 출하면적은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수박으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5.5.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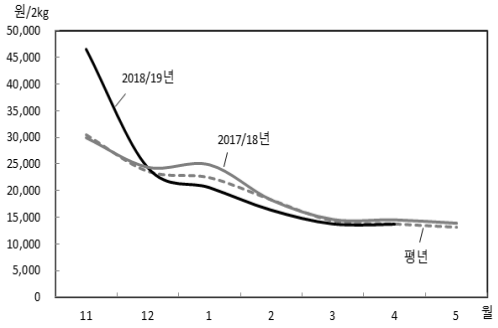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3~2017년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6만 8,000원, 2월 8만 5,500원, 3월 6만 8,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28% 높은 7만 4,100원이었음.
  -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보다 6% 감소하였음. 이는 최근 2년간 가격이 낮아 경남지역의 정식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월 4만 200원, 2월 5만 8,900원, 3월 5만 3,4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16% 낮은 5만 900원이었음.
  - 일반풋고추 1~3월 반입량은 주산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었음. 반입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도매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소비대체재인 오이맛고추의 가격이 낮아 동반 하락하였기 때문임.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1%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8,300원이었음. 4월 일반풋고추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6%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5,5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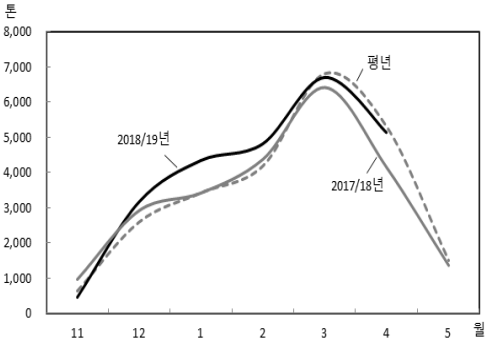
- 청양계풋고추 4월 반입량은 전년보다 1% 많았으며, 이는 경남에서 전년 가격이 낮아 정식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작년보다 기상여건이 좋고, 다수확 품종 재배로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5~6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영남의 정식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줄 것으로 전망됨. 5월 일반풋고추 출하량은 홍고추로 전환한 농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감소하나, 6월은 강원과 영남의 정식면적 증가로 인하여 증가할 전망임.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9년 1/4분기 동향
  - 딸기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월 2만 500원, 2월 1만 6,300원, 3월 1만 3,700원이었음. 1/4분기 평균가격은 1만 6,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낮았음.
  - 딸기 1/4분기 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하였음. 이는 딸기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정식 이후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 2019년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월 딸기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7% 낮은 상품 2kg 상자에 1만 3,600원이었음.
  - 5~6월 딸기 출하량은 조기에 출하를 종료하였던 전년과 달리 금년에는 출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됨.

6. 축산[6)]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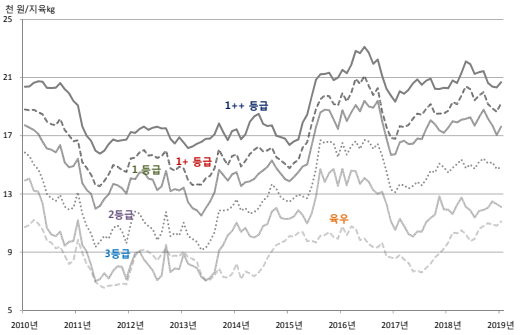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17년	18년				19년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p)
사육 가구수	99	98	97	97	97	96
총 마릿수	3,020	2,947	3,117	3,168	3,113	3,026
가임 암소	1,380	1,345	1,370	1,439	1,434	1,401

주: 2019년 3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육우) 2019년 1/4분기 동향
  - 3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12월(311만 3천 마리)보다 2.8% 감소한 302만 6천 마리였음(전년 동월 294만 7천 마리보다 2.7% 증가).
    * 3월 한우 사육 마릿수 287만 7천 마리, 육우 14만 9천 마리
    * 가임암소 마릿수 140만 1천 마리(전년 동월 134만 5천 마리 보다 4.2% 증가)
  - 1/4분기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 분기 17,654원/지육kg보다 0.8% 하락한 17,506원이었음(전년 동기 17,827원보다 1.8% 하락).
- (한우) 2/4분기 동향 및 전망
  - 6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297만 5천 마리)보다 1.4% 증가한 301만 7천 마리로 전망됨.
  - 4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월 18,105원보다 4.5% 하락한 17,295원이었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이형우 전문연구원(lhw0906@krei.re.kr), 김진년(forever8520@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한봉희(hanbh@krei.re.kr), 정세미(vvjdtpal55@krei.re.kr), 김명수(kms8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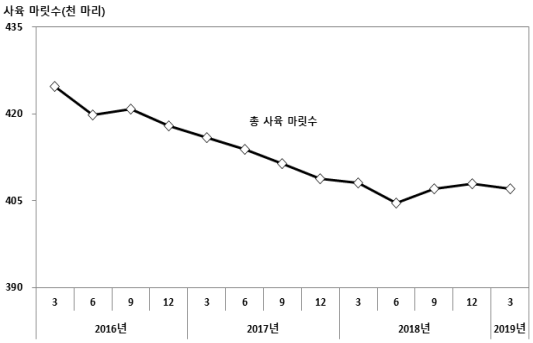
– 5월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16,900~17,900원으로 전망됨.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2018년(A)	2019년	2019년(B)	B/A
사육 마릿수	6월 297만 5천 마리	3월 287만 7천 마리	6월 301만 7천 마리	1.4%
1등급 도매가격 (지육kg)	2018년 6월 18,265원	2019년 3월 17,629원	5월 16,900~17,900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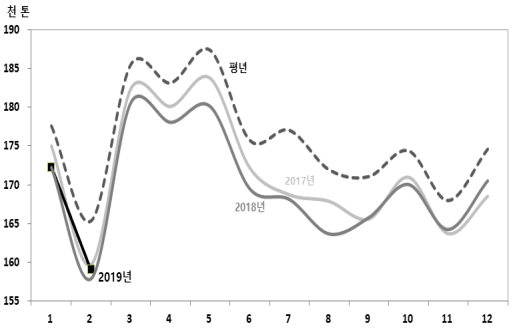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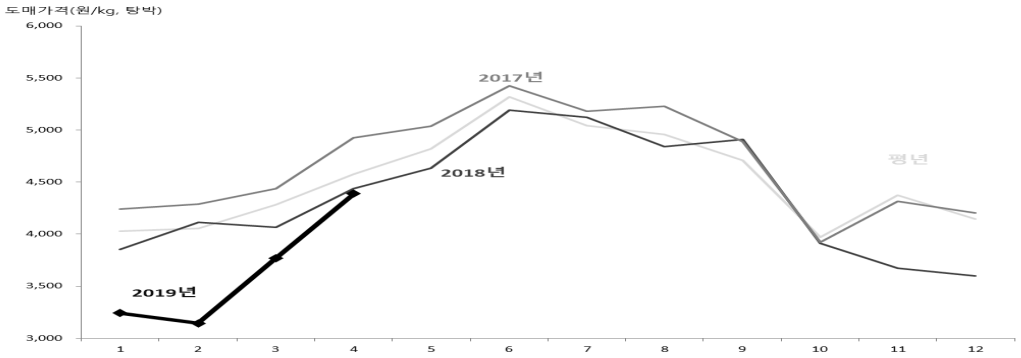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19년 1/4분기 동향
  - 3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40만 7천 마리였음. 2014년 원유 감산 대책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 1~2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온화한 기온으로 젖소 마리당 산유량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보다 0.4% 증가한 33만 1천 톤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019년 2/4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비슷한 40만 4천~40만 6천 마리로 전망됨.
  - 2/4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0.1~0.6% 증가한 52만 8천~53만 1천 톤으로 전망됨.

6.3. 돼지

돼지 도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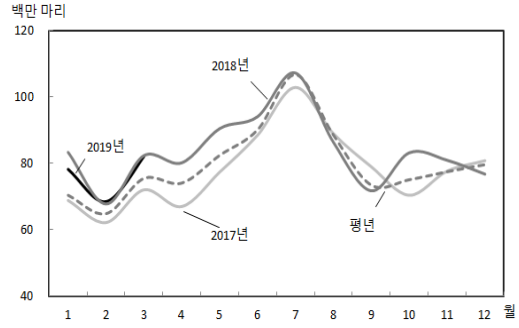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9년 1/4분기 동향
  - 2019년 3월 모돈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5% 증가한 106만 마리였음. 모돈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총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0.4% 증가한 1,120만 마리임(통계청).
  - 1/4분기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가 늘어 전년 동기간(442만 마리)보다 증가한 447만 마리였음.
  - 1/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많아 전년 동기간 4,000원/kg보다 하락한 3,370원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4분기 도축 마릿수는 자돈 생산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한 431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고기 수입량은 중국 ASF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11만 3천 톤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여 2/4분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강세로 전망됨.
  - 4월 4,387원, 5월 4,600~4,800원, 6월 5,200~5,400원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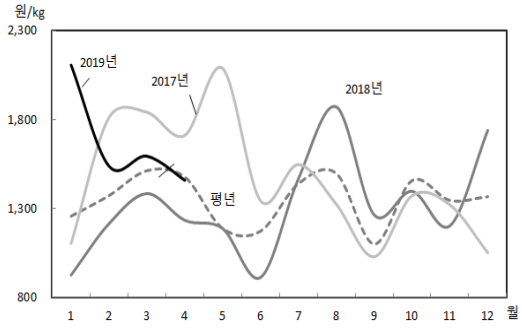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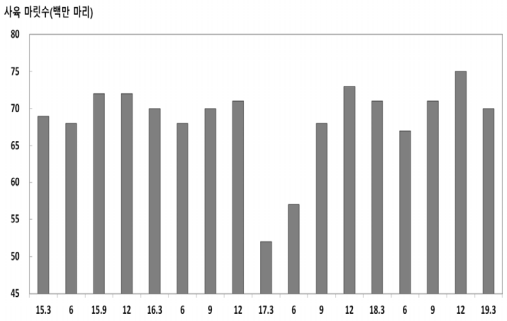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 2019년 1/4분기 동향
  - 1분기 육용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2018년 2~3분기 종계 입식 증가로 전년보다 2.8% 증가한 445만 마리로 추정됨.
  - 1분기 도계 마릿수는 종계 생산성 저하로 병아리 생산이 줄어 전년 동분기 대비 2.0% 감소한 2억 2천 9백만 마리였음.
  - 1분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병아리 생산이 줄어 도계가 감소하였으며 생계 유통물량도 줄어 전년 동기 대비 48.7% 상승한 1,747원/kg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2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종계 생산성이 점차 회복되고 산란 가담 신계군 이 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병아리 생산이 늘어 2분기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2.3% 많은 수준인 2억 7천만 마리로 예상됨.
  - 4월 육계 산지가격은 도계 마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육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대닭 부족으로 전년 대비 18.2% 상승한 1,459원/kg이었음. 병아리 품질 저하로 대닭 출하 비중이 줄어 5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고 6월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5월: 1,100~1,300원, 6월: 1,000~1,2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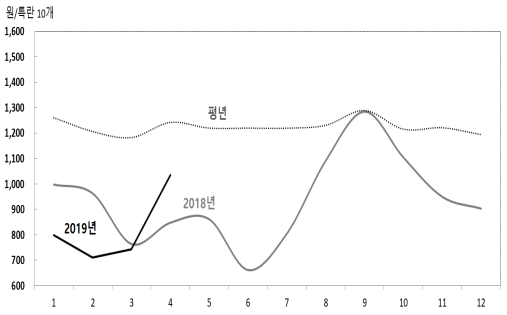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통계청

계란 산지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2018년 이전), 축산물품질평가원(2019년)

- 2019년 1/4분기 동향
  -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1.7% 감소한 7,010만 마리이며,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5,560만 마리임.
  - 3월 산란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보다 2.7% 증가한 21만 9천 톤이었으며, 그 중 산란초기 생산량이 전년보다 1.7%, 산란 중기가 5.2%, 산란 말기가 29.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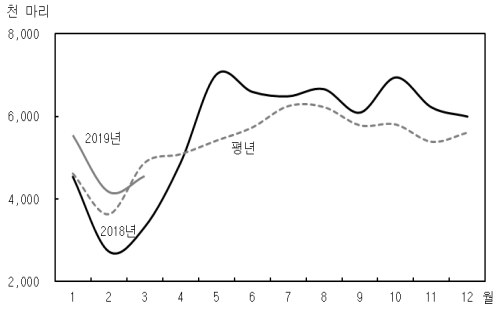
- 1~3월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4% 하락한 750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이었음.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사육 마릿수 감소로 4~6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 (4월: 1,035원/특란10개, 5월: 900~1,050원, 6월: 850~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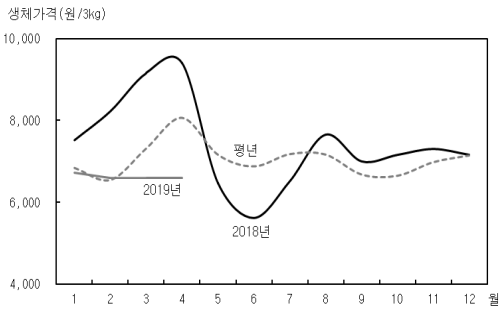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압 마릿수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생체 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4~2018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한국오리협회

• 2019년 1/4분기 동향

- 3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69.0% 증가한 924만 마리임. 육용오리는 전년보다 74.1% 증가한 844만 마리였고, 종오리도 전년보다 29.2% 증가한 80만 6천 마리임.
-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1/4분기 도압 마릿수는 전년보다 34.9% 증가한 1,429만 마리임. 도압 마릿수 증가로 1/4분기 오리 생체가격(3kg)은 전년 동기보다 20.0% 하락한 6,638원임.

- 2/4분기 동향 및 전망
  - 4~6월 국내 오리고기 생산량은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도압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5~6월 오리 생체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5,800~6,200원/3kg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7)]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시장 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식생활 습관이 변화하면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7	71.8
	101~300㎡ 이하	63	19.1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50	75.8
	4~5명 이하	39	11.8
	6명 이상	41	12.4

7) 이 자료는 농업관측본부 김문희(kmh0618@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2 이하인 업소가 71.8%로 가장 많고, 101~300m2 이하 19.1%, 300m2 초과 9.1% 순임.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75.8%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 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19년 1/4분기 음식업 경기 동향은 2.68(5점 척도)로 전년 동기(2.65) 대비 상승하였고, 전분기(2.69) 대비 하락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18년 1/4분기	2018년 4/4분기	2019년 1/4분기
2.65	2.69	2.68

주: 음식업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1/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2019년 2/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96.9로 나타나 전분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19년 1/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5.4% 감소하였고, 전분기보다 0.6% 감소함.
  - 감자 1/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하였고, 전분기보다 1.1% 감소함.

곡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5.4	-4.2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2/4분기 쌀과 감자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2/4분기)에 비해 각각 4.6%,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4.6	-2.3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19년 1/4분기 엽근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하였고, 양념채소류는 3.3% 감소함.
  - 엽근채소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3.7~20.0% 감소하고, 양념채소 월평균 구매량도 전년 동기보다 3.3~9.0% 감소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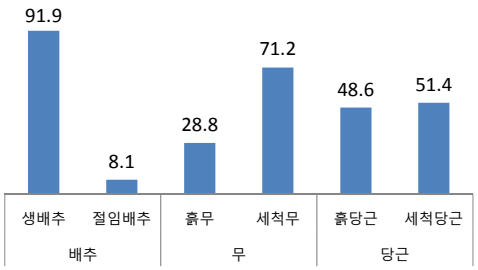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1.8	건고추	-5.4
배추김치	-3.7	고춧가루	-5.5
무	-7.1	마늘	-4.6
당근	-7.2	양파	-9.0
양배추	-20.0	대파	-7.9
소계	-5.5	소계	-3.3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채소류 품목별 구입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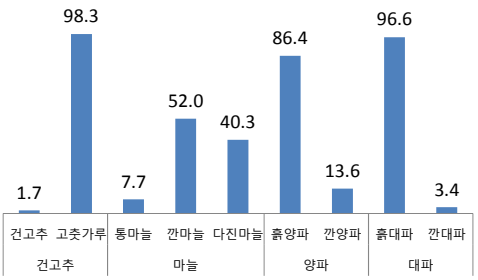
〈엽근채소〉

단위: %



〈양념채소〉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대파(96.6%), 배추(91.9%), 양파(86.4%), 감자(100.0%)이며, 무, 당근, 건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과정을 거친 1차 가공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85.7%), 깐양파(56.2%), 깐마늘(42.5%), 다진마늘(42.1%), 고춧가루(4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무, 배추, 대파, 양배추는 전체 구매의 95%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음.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18년 1/4분기		2019년 1/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8.5	1.5	99.6	0.4
	배추	98.1	1.9	99.1	0.9
	배추김치	21.0	79.0	14.3	85.7
	당근	63.9	36.1	61.0	39.0
	양배추	96.4	3.6	99.1	0.9
양념채소	건고추	90.0	10.0	61.9	33.3
	고춧가루	62.0	38.0	58.8	41.0
	통마늘	73.6	26.4	85.7	14.3
	깐마늘	61.7	38.3	57.5	42.5
	다진마늘	63.4	36.6	57.9	42.1
	흙양파	88.9	11.1	88.9	11.1
	깐양파	69.3	30.8	43.8	56.2
	대파	99.7	0.4	99.4	0.6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뤄지는데, 2019년 1/4분기 배추김치를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6.8%이고, 완제품을 구입하는 비율은 52.3%로 조사되었음.
  -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현재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31.8%로 조사되었음.
- 2019년 2/4분기 엽근과 양념채소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2/4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19.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념채소 구매량은 4.3~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채소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1.2	건고추	-5.4
배추김치	-3.4	고춧가루	-5.5
무	-6.7	마늘	-4.3
당근	-7.3	양파	-9.4
양배추	-19.2	대파	-7.8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19년 1/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함.
  - 풋고추, 애호박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2%, 13.8% 감소하였고, 오이는 1.3% 증가함.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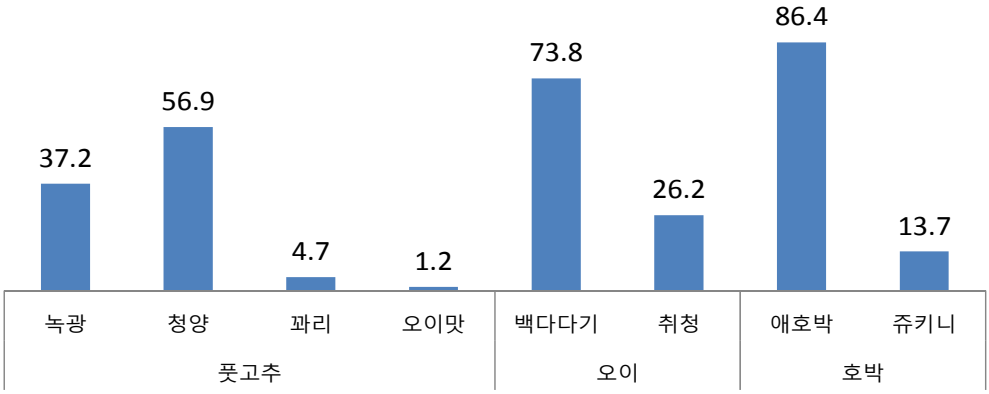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5.2	1.3	-13.8	-2.1

주: 소계는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업체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은 청양계풋고추가 5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7.2%), 꽈리고추(4.7%), 오이맛고추(1.2%) 순으로 조사됨.
  - 오이는 취청오이보다는 백다다기오이(73.8%)를, 호박은 쥬키니 품종보다는 애호박(86.4%)을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구입품종

단위: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2/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2/4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풋고추, 애호박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8%, 1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오이의 경우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풋고추	오이	애호박
-5.8	0.9	-13.4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류

- 2019년 1/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2.8%, 7.5%, 2.0%, 15.6% 감소함.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2.8	-7.5	-2.0	-15.6	-	-2.4

주: 소계는 오리고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2015년=100, 총지수 1,000)의 품목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1/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의 국내산 구매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 비중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호주산은 0.7%p 감소한 반면, 미국산 구입 비중은 2.1%p 증가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71.5%로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하였

으며, 미국산은 0.4%p, 칠레산은 0.5%p 증가함.

-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83.6%, 96.9%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2018년 1/4분기</th><th colspan="5">2019년 1/4분기</th></tr>
<tr><td rowspan="2">쇠고기</td><td colspan="2">국내산</td><td colspan="2">호주산</td><td>미국산</td><td colspan="2">국내산</td><td colspan="2">호주산</td><td>미국산</td></tr>
<tr><td colspan="2">13.0</td><td colspan="2">71.3</td><td>15.7</td><td colspan="2">11.5</td><td colspan="2">70.6</td><td>17.8</td></tr>
<tr><td rowspan="2">돼지고기</td><td>국내산</td><td>미국산</td><td>캐나다산</td><td>칠레산</td><td>뉴질랜드산</td><td>국내산</td><td>미국산</td><td>캐나다산</td><td>칠레산</td><td>뉴질랜드산</td></tr>
<tr><td>72.0</td><td>7.5</td><td>6.0</td><td>10.7</td><td>2.8</td><td>71.5</td><td>7.9</td><td>6.3</td><td>11.2</td><td>1.8</td></tr>
<tr><td rowspan="2">닭고기</td><td colspan="2">국내산</td><td colspan="2">미국산</td><td>브라질산</td><td colspan="2">국내산</td><td colspan="2">미국산</td><td>브라질산</td></tr>
<tr><td colspan="2">88.5</td><td colspan="2">9.2</td><td>6.1</td><td colspan="2">83.6</td><td colspan="2">8.0</td><td>7.4</td></tr>
<tr><td rowspan="2">오리고기</td><td colspan="3">국내산</td><td colspan="2">프랑스산</td><td colspan="3">국내산</td><td colspan="2">프랑스산</td></tr>
<tr><td colspan="3">88.9</td><td colspan="2">11.1</td><td colspan="3">96.9</td><td colspan="2">3.1</td></tr>
</table>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 2019년 2/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18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2/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6.0~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축산물 품목별 2/4분기 예상 구매량 전분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10.8	-6.0	2.1	-14.4	-

자료: 농업관측본부 음식점패널(330업체) 조사결과

3. 요약 및 시사점

- 2019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8년 1/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구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5.5%, 3.3% 감소하고, 과채류와 축산류는 각각 2.1%, 2.4% 감소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배추김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서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깐양파, 깐마늘, 다진마늘, 고춧가루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70% 이상이며, 오리고기를 제외한 축산물의 국내산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는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42.6%)하기 위해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력 부족(21.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자재를 취급해서(14.4%),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2.8%)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문제점에 대해 응답업체의 39.1%가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심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의 어려움(18.5%),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이(17.3%), 가격이 균일하지 않음(13.0%) 순으로 조사됨.
- 후식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7.6%로 적으며, 제공하는 후식과일로는 사과, 오렌지, 배, 수박·참외 등, 파인애플, 방울토마토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2/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예상 구매량은 2018년 2/4분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류와 오이를 제외한 과채류는 모두 전분기보다 감소하고, 축산도 닭고기를 제외하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별주제

❶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❷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김수석*, 유찬희**

1. 들어가며

- 2017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이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 논의가 확산되었다. 셋 모두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의제일 뿐만 아니라 그 바탕에 이른바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개념을 담고 있다.
  - 정부 개헌안 제129조[1)]에서는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경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직불제 이행의무는 공익적 기능의 적극적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리는 농민수당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 자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특히 다원적 기능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여기서 파생되는 가치는 무엇인가, 누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를 법·제도 근거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을 탄탄히 다지지 못한다면 앞선 논의도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soosuk@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chrhew@krei.re.kr)

1)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http://file.mk.co.kr/meet/2018/03/pdf_readtop_2018_185300_1521699197.pdf〉 (검색일: 2019. 4. 19)

2) 〈http://www.mafra.go.kr/2019plan/1727/subview.do〉 (검색일: 2019. 4. 19)

- 이 글에서는 앞선 제기한 선결 과제 중 특히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다원적 기능의 범위와 가치 평가 방법, 그리고 향후 활용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2. 다원적 기능 범위 및 가치 평가 논의 동향

2.1. 논의 동향

- 국내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논의 이전에도 친환경농업, 더 나아가 농업 전반 지원 논리로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왔다. 다원적 기능은 농업 부문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근거, 또는 친환경농업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종종 사용해 왔다.[3)]
- 이때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망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이루어져 온 국제기구의 다원적 기능 분류(표 1)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에서 명시한 범위를 대체로 준용하고 있다.
  - 기본법 제3조 제9호에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1) 식량의 안정적 공급, 2)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3)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5) 생태계의 보전, 6)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유찬희·박준기·김종인·박지연. 2016.『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1/2차 년도)』, 102쪽.

<표 1> 국제기구별 농업의 다원적 기능 분류

국제 기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WTO	(1) 환경보전, (2) 식량안보, (3) 농촌개발	
OECD	(1) 경관, (2) 종 생태계 다양성, (3) 토양의 질, (4) 수질, (5) 대기의 질, (6) 물 이용, (7) 경지보전, (8) 온실효과, (9) 농촌 활력 증진, (10) 식량안보, (11) 문화유산, (12) 동물복지	
FAO	사회적 기능	(1) 도시화 완화, (2) 농촌공동체 활력, (3) 피난처 기능
	문화적 기능	(4) 전통문화 계승, (5) 경관 제공
	환경적 기능	(6) 홍수방지, (7) 수자원 함양, (8) 토양보전, (9) 생물다양성
	식량 안보	(10) 국내 식량공급, (11) 국가 전략적 요청
	경제적 기능	(12)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13) 경제위기 완화

자료: 유찬희 외. 2017. 『주요 국가의 다원적 기능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연구』. 9쪽.

- 국내 연구는 위 범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하였다(표 2).

<표 2> 다원적 기능 범위 (긍정적 외부효과)

구분	경제		사회			환경			
	식량 안보	농촌 활성화	여가 정서	문화 유산	식품 안전성 향상	환경 보전	경관 보전	생물 다양성 증가	동물 복지 개선
유진채 외(2010)				○		○	○	○	
공기서 외(2013)	○			○		○		○	
오세익·김수석·강창용(2001)	○	○		○	○	○	○		
이재옥(1999)	○	○				○			
유진채(1999)	○	○	○	○		○	○		
김은자·이한기(2001)	○		○			○			
안윤수 외(2005)		○	○	○					
이진홍(2014)	○	○				○			
농촌진흥청(2001)	○	○		○		○			

자료: 유찬희·조원주·김선웅.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48쪽.

- 김수석 외(2018)[4]은 환경보전, 농업 경관, 식량안보, 사회·문화 기능을 대상으로 한 기존 가치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2016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의 연간 가치가 약 27조 8,9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2016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억 원

구분		농업			
		논	밭	농업 일반	전체
		124,341	46,323	108,329	278,993
환경 보전	홍수 조절	13,552	3,300	15,679	32,531
	지하수 함양	23,000	976	-	23,976
	기온 순화	28,103	9,619	-	37,722
	대기 정화	32,079	26,780	-	58,859
	토양유실 저감	2,120	-	-	2,120
	축산분뇨 소화	6,765	5,648	-	12,413
	수질 정화	18,722	-	-	18,722
	소계	124,341	46,323	15,679	186,343
농업 경관		-	-	20,452	20,452
사회·문화 기능(농촌 활력 제고 포함)		-	-	41,040	41,040
식량안보		-	-	31,158	31,158

자료: 김수석 외(2018). 20쪽.

2.2. 시사점

- 최근까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공익적 기능' 범위로 좁게 설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익형 직불금의 근거 등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농업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이 계속 변해왔고, 관련 연구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이 사회에 기여

4) 김수석·유찬희·조원주·성재훈·홍동선.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자원 가치 설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는 바를 중심으로 농업 부문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존의 논의와 평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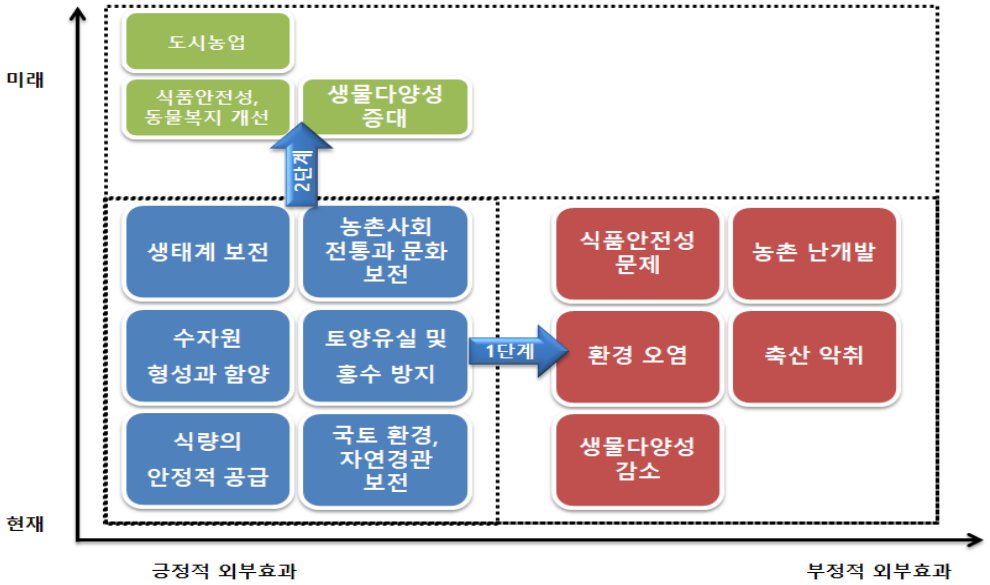
-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 자체를 지금까지보다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는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기능(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경제) 뿐만 아니라 역기능(부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까지 범위에 담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 수질 오염과 토양 양분수지 등 환경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질병 발병,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식품안전성 신뢰 저하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농업 부문도 여기서 자유롭기 어렵다. 즉, 영농 활동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을 줄이는 것까지 다원적 기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다원적 기능 범주를 넘어 유사한 개념과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통합되고 상이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김수석 외(2018)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토양의 생태계 서비스 개념들 간의 차이와 내용을 비교한 것도 이후 논의와 실천 그리고 제도화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의 하나였다.
  - 이와 함께 현재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의제(예: 동물복지, 생물 다양성)까지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셋째,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는 '농업 부문 그동안 수행해 온 다원적(공익적) 기능 중 순기능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 그러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역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평가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며, 선기능–후지불 방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웠다.
  -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순기능

(역기능)을 늘리는(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 사회적 투자를 요청하는 형태'로의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 요컨대 시간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 역할'을 넘어 '앞으로 할 역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천 프로그램' 제시를 제안한다.

<그림 1> 다원적 기능 범위 확대



자료: 유찬희·조원주·김선웅. 2018.『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145쪽.

- 세 번째 요인 분석에서 도출되는 함의는 다원적 기능 개념을 <그림 1>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된다. 이에 더해 (협의의) 공익적 기능과 생태계 서비스 등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 넷째, 가치를 평가할 때 방법론 역시 중요하다. 다원적 기능 확충 정책을 시행하려면 편익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다원적 기능이 지닌 비시장 재화 특성 때문에 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 특별한 방법론이 요구된다.[5)]

5) 김수석·성재훈·조원주·이명기·이상민. 2018a.『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외(2018a)는 기존에 주로 적용하던 대체비용법, 현시선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선택실험법이 적합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 평가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 지향' 관점에서 다원적 기능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3. 다원적 기능 실천 사례: 스위스

3.1. 농정 목표

- 1992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농정 개혁은 그동안 6단계의 농정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어 왔다. 2018년 현재 제6기인 '농정 2018-2021'이 추진 중이나, '농정 2018-2021'은 '농정 2014-2017'의 목표를 한차례 더 속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스위스 농정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것은 '농정 2014-2017'의 내용이 된다.
- '농정 2014-2017(Agrarpolitik 2014-2017)'[6]에 따르면, 스위스 농정의 3대 목표는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으로 요약된다(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되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되는 것이다.

6) Schweizerischer Bundesrat. 2012. Botschaft zur Weiterentwicklung der Agrarpolitik in den Jahren 2014-2017 (Agrarpolitik 2014-2017). Bern.

3.2. 농정목표의 실천 프로그램

- 농정목표로서 지속가능성은 「연방헌법」상의 '지속가능하고 시장지향적인 생산' 개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표 4).[7)]

<표 4> 스위스 농정목표 지속가능성의 지표

구분	경제	사회	환경
자원	자본갱신 경종작물재배면적	교육 및 훈련	친환경 대체농지 작물보호제 판매(량)
효율성	노동생산성		질소(N) 효율 인(P) 효율 에너지 효율
정의		비농업부문과 소득비교 비농업부문과 삶의 질 비교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2). 2096쪽.

- 농정목표로서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의 성과가 개별 농업경영체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과 별도로 국가나 사회 전체의 공동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표 5). 공동경제적 성과에 속하는 것은 ① 식량안보, ② 생물다양성 보존과 같은 자연적인 생활토대 유지, ③ 경작경관 유지, ④ 지방분권적 정주, ⑤ 동물복지 등인데, 한마디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 스위스의 농정은 이 기능들의 육성 및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직접지불금도 이러한 공동경제적 성과에 대해 지불하는 성격을 갖는데, 2014년의 스위스 직불제도 변경도 이와 연관이 있다.

7) 농정목표 지속가능성의 지표별 세부 내역 및 달성 수준에 대해서는 김수석 외(2018), 34-35쪽 참조.

〈표 5〉 스위스 농정목표 공동경제적 성과의 내용

공동경제적 성과 목표	실천목표
식량안보	- 현재 수준에 맞는 칼로리 생산에 의한 생산 역량 유지 - 주요 작목의 생산역량 유지 - 충분한 우량농지 보전
자연적 생활토대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육성 - 토지, 물, 공기 등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경작경관	- 경작경관의 개방적 보전 - 다양한 경관 보전 및 육성
지방분권적 정주	- 실천목표는 칸톤 차원에서 확정
동물복지	- 동물친화적 사육시스템에 높은 참여 달성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2). 2100쪽.

- ‘농정 2014-2017’에 따르면, 이와 같이 설정된 농정목표에 대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정목표에 대한 실천계획은 농정목표별 세부지표를 만들어 개별 지표의 기준연도 값과 목표연도 값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된다.
  - 당초 2017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수립된 실천계획이 ‘농정 2018-2021’의 목표연도인 2021년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수정되었는데, 그 내용이 〈표 6〉과 같다.

<표 6> 2021년 스위스 농정목표 지표설정 및 목표도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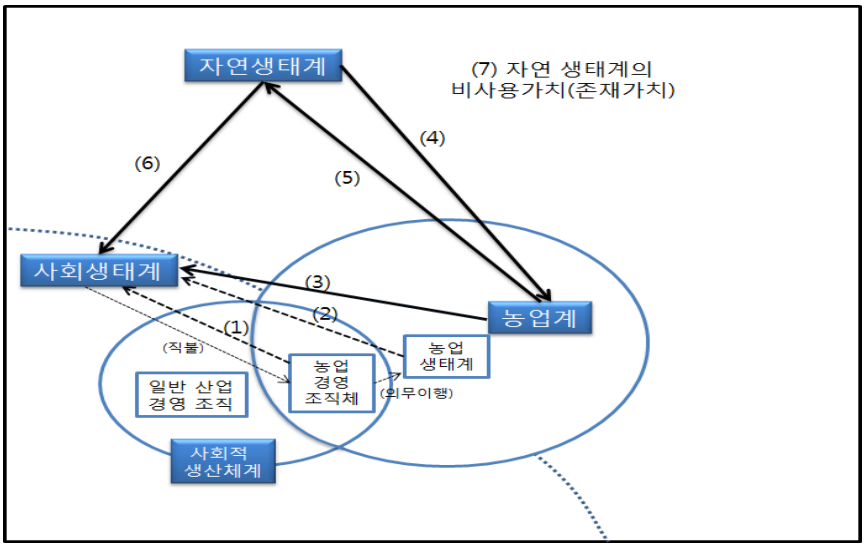
실천목표	지표 및 목표치	2007/09년 상태	2021년 목표	현 수준(비교연도)
지속가능성 경제	노동생산성	연간 2.1% 증가 (00/02에서 08/10까지)	연간 2.1% 증가 (08/10에서 19/21까지)	연간 1.3% 증가 (08/10에서 14/16까지)
	자본 갱신	30년	30년	28년 (2014/16)
지속가능성 사회	(농업)부문 노동소득	연간 노동소득 0.7% 감소	연간 0.5% 이하 감소로 손실 축소	연간 0.8% 증가 (08/10에서 14/16까지)
식량 안보	총생산	23,000 TJ*	23,300 TJ	23,315 TJ (2015)
	순생산	20,700 TJ	21,300 TJ	20,399 TJ (2015)
	정주지역의 농지	연간 1,900ha 감소	연간 1,000ha 이하 감소로 축소	1,097ha 감소 (2014/16)
자연적 생활토대/ 지속가능성 환경	질소 효율	28%	33%	31% (2015)
	인 효율	60%	68%	60% (2015)
	암모니아 방출	48,700t N	41,000t N	47,700t N (2015)
	생물다양성 육성면적(BFF)의 양	골짜기 저지대 60,000ha BFF	골짜기 저지대 65,000ha BFF	골짜기 저지대 75,163ha BFF (2016)
	생물다양성 육성면적(BFF)의 질	BFF의 36% 네트워킹, BFF의 27% 질적 고도화	BFF의 50% 네트워킹, BFF의 40% 질적 고도화	BFF의 74% 네트워킹, BFF의 37% 질적 고도화 (2016)
경작경관	알프스 지역 농지	연간 1,400ha 감소	숲으로 전환율 20%로 축소	-
동물복지	가축의 축사 밖 주기적 운동(RAUS)	72%	80%	76% (2016)

주: TJ(Tera Joule)=1조 에너지 단위
자료: Schweizerischer Bundesrat(2017). *Gesamtschau zur mittelfristigen Weiterentwicklung der Agrarpolitik.* Bern. 17쪽.

4. 나가며

- 이 소고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개념 및 가치 평가가 갖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스위스 사례를 예시로 살펴보았다. 이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현재 쓰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자체를 기능(순기능 → 순기능 및 역기능)과 시간(과거에서 현재 → 현재에서 미래) 차원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개념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농업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영농 활동의 성과를 넘어 자연 생태계 기능의 가치까지 담아내는 것이 된다(그림 2).
  - 가치 평가 역시 이러한 개념 확장에 맞추어 '현재 대비 미래 농업의 기능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 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자연계와 사회계 간 상호작용 모식도를 고려한 가치 평가



주: 협의의 공익적 기능 가치는 (1) + (2), 생태계 서비스 가치는 (5) + (6) + (7),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는 (1) + (2) + (3) + (4) + (5) 효과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음.
자료: 김수석·유찬희·조원주·성재훈·홍동선. 2018.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및 토양자원 가치 설정 연구』. 52쪽에서 재구성(수정).

- 스위스 사례를 참고한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은 세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면 그 성과물로 다원적 기능의 산출 및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책 방향을 따르는 것이 된다.
  - 요컨대 “지속가능한 농업 ⇒ 다원적 기능 산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 ⇒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 다원적 기능 확산”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게끔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수석 외 2018: 55).
  - 이에 더해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려면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수립(세부 목표 및 기준·목표연도 지표 값 설정 등)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박지연*

1. 연구배경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를 추진 중임.
  - 2016년 기준 총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설비용량도 63.8GW로 확대하겠다는 보급목표를 발표함.
  - 특히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농촌지역 태양광의 경우 염해간척지(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하여 2030년까지 10GW를 생산할 계획임.
-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집중하였음.
  -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여 기저에너지로서 사용 가능하고 혐오물질인 가축분뇨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축분뇨의 이동 및 에너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jiyunpark@krei.re.kr)

- 농촌태양광사업을 통해 정부는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입찰시에는 주민참여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신재생 융자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과 이율 1.75%(변동금리), 시설한도자금 100억 원을 우선 지원함.
- 이를 통해, 정부는 농촌태양광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하고자 하며,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농촌태양광 정책금융예산 또한 2018년 320억 원에서 2019년 1,5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될 예정임.

•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의 빠른 확산과 함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농촌지역 태양광은 빠르게 보급·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실정임.
-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90%의 사업이 외지인이 수행하는 등 상당수의 농촌태양광 발전이 외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인의 경우도 여유자금이 있는 부농들만 사업에 참여하여 오히려 농가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많음.
- 또한 한계농지에 우선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경우 폭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음.
-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및 토양오염, 인근주민들의 안전성 우려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갈등이 발생함.
- 기술적으로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이미 전력계통의 수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농촌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더라도 한전에 판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규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농촌주민 주도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자립모델 필요함.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서 벗어나 농촌지역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 모델 구축 필요함.

2.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하여 전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서 도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친환경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2017년)

단위: toe, %

에너지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기타시도	
태양열	836	0.2	4,691	0.2	22,156	0.2
태양광	23,664	6.7	107,684	4.5	1,348,277	9.8
풍력	46	0.0	11,716	0.5	335,781	2.5
수력	258	0.1	13,041	0.5	586,852	4.3
해양	-	-	0	0.0	104,256	0.8
지열	11,270	3.2	24,519	1.0	146,492	1.1
수열	-	-	118	0.0	6,638	0.0
바이오	77,003	21.9	713,630	29.7	2,605,148	19.0
폐기물	168,115	47.9	1,381,328	57.5	7,792,860	56.9
연료전지	69,689	19.9	78,150	3.3	165,465	1.2
IGCC	-	-	0	0.0	273,861	2.0
합계	350,881	100.0	2,400,319	100.0	13,697,186	100.0

자료: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통계청 kosis.kr).

- 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하여 높지만,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생산 비율은 매우 낮음.
  - 도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는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

단위: %

	태양광			풍력			수력		
	서울	광역시	도	서울	광역시	도	서울	광역시	도
2008	96.6	83.0	18.0	100.0	57.4	1.0	-	2.71	0.00
2009	93.9	75.4	12.5	100.0	40.6	0.7	-	2.33	0.00
2010	96.1	77.4	13.1	100.0	8.1	0.6	-	2.86	0.02
2011	79.4	73.0	15.3	100.0	2.0	0.6	-	1.49	0.02
2012	79.2	71.4	19.3	100.0	1.2	0.5	-	0.08	0.05
2013	71.6	40.8	16.6	100.0	0.9	0.5	-	4.26	0.09
2014	64.1	39.1	14.3	100.0	0.9	0.8	0.00	3.06	0.14
2015	61.9	31.2	11.1	100.0	1.2	0.8	0.00	1.97	0.29
2016	64.7	32.4	10.5	100.0	1.2	0.6	0.00	1.53	0.06
2017	68.4	32.7	10.0	100.0	1.3	0.5	0.00	2.56	0.06

자료: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통계청 kosis.kr).

3. 농업·농촌 에너지 소비 현황

- 2016년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320.1천 toe로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감소는 농림어가 수 감소, 농업부문 경제활동 둔화, 동력 어선 척수 및 톤수 감소 때문임.

농림어업 부문 에너지 소비

단위: 천 toe, %

		1992	2001	2010	2013	2016
농림어업	소비량	2,266	4,487	3,434	3,485	3,320
	%	4.6	5.6	3.3	2.9	2.6
산업 합계		48,997	80,522	103,017	118,991	130,010

자료: 에너지총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 농림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0.8%에서 2016년 4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율은 2001년 15.3%에서 2016년 50.6%로 증가하였음.
  - 농림업 에너지 소비가 석유류 중심에서 전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이지만 석유류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타 에너지원에 비해 석유류와 전력의 소비 비중이 높은 편임.

농림업 부문 에너지원별 에너지 소비 비율

단위: %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연탄	3.9	2.1	7.6	7.7	7.4	3.5
석유류	80.8	82.5	72.6	57.2	52.0	45.8
도시가스	0.0	0.0	0.3	0.1	0.1	0.1
전력	15.3	15.4	19.5	35.0	40.6	50.6
기타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에너지총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원예 및 축산의 생산 비중이 증가 추세임.
  - 경영비에서 수도광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과채의 경우 12.4%에 달함(파프리카 24.2%, 시설가지 23.5%). 쌀, 마늘, 양파, 고추, 콩의 평균 수도광열비 비중이 1.6%인 것과 비교하면 시설과채농가의 수도광열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품목별 농업생산액 비중

단위: %

	식량 작물	엽채류 노지	엽채류 시설	과채류 노지	과채류 시설	근채류 노지	근채류 시설	과실	축산업
1990	41.5	2.5	0.4	1.9	3.2	1.6	0.1	7.3	22.0
2017	17.4	2.5	1.0	0.9	9.4	1.2	0.0	9.8	41.8

자료: 농림생산지수(통계청 kosis.kr).

- 기타시도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하여 낮은 수준(서울의 93%, 광역시의 95%)이지만, 전력 및 석유 소비량은 더 높음.
  - 기타시도의 가구는 서울가구 대비 석유는 204%, 전력은 24% 더 소비하고 있음.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단위: Mcal, %

	전국		서울		광역시		기타시도	
전력	3,107.1	28.2	2,704.5	23.4	2,858.0	25.4	3,364.8	31.4
석유	1,570.7	14.3	723.3	6.3	867.2	7.7	2,196.5	20.5
도시가스	5,323.8	48.3	7,190.7	62.2	6,879.5	61.2	3,942.4	36.8
지역난방	759.8	6.9	513.2	4.4	610.5	5.4	916.2	8.6
연탄	192.1	1.7	437.6	3.8	35.2	0.3	178.4	1.7
기타	57.9	0.5	-	-	-	-	105.2	1.0
합계	11,011.0	100.0	11,569.0	100.0	11,250.0	100.0	10,703.0	100.0

자료: 가구에너지소비실태조사(통계청 kosis.kr).

- 경기도 여주시의 도시지역(동)와 농촌지역(읍·면)의 가구 난방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시지역의 겨울철 난방 에너지원은 주로 도시가스(76.7%)인 반면, 농촌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기(38.4%)와 석유(30.6%) 의존율이 높음.

경기 여주시 겨울철 난방 에너지원

단위: %

	석유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	연탄	기타
동부	8.9	9.7	76.7	2.9	1.4	0.5
읍면부	30.6	38.4	19.9	3.2	1.8	6.1
평균	19.7	24	48.4	3	1.6	3.3

자료: 경기 여주시 복지실태조사(통계청 kosis.kr).

- 겨울철 난방비 지출금액도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평균 50% 가량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만 원 이상 겨울철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 비율도 도시지역은 16.6%, 농촌지역은 42%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경기 여주시 겨울철 난방비

	10만원미만(%)	10~30만원미만(%)	30~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평균(만원)
동부	20.4	63	14.5	2.1	17
읍면부	10.4	47.6	33.8	8.2	25
평균	15.4	55.3	24.1	5.1	21

자료: 경기 여주시 복지실태조사(통계청 kosis.kr).

4. 국내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정책사업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되었지만, 이전의 각 부처별로 추진되던 폐기물, 폐자원, 바이오매스 관련 사업이 수정·통합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지역별로 발생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마을 단위로 이용하여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까지 4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범사업(2010~2012년, 10개소)을 확대해 600개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하지만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된 바 있음. 충남 공주시의 경우, 지자체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이 악취 등을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사회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공주시는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포기하고 지열, 태양광, 유리온실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음.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에너지 자립마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이에 해당됨. 소각장, 매립지 등의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표를 담고 있음.
  - 하지만 2013년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주민반대가 없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등 우선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홍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존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저탄소 녹색마을과 차별성을 크게 가지지 못함.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기존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실패 이유를 경제성 부족, 정부주도형 사업의 한계, 운영 노하우의 부족으로 분석하고, 대신 주민주도형 수익모델 창출, 체계적 정부 지원, 전문기관의 참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로 3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이 있음. 충남도는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줄이기 등 범도민적 저탄소 녹색마을의 확산을 위해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해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지원함.

- '13년 이후 매년 2개 마을을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로 선정하여 각 75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을 지원하였으며, '18년까지 총 12개의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됨.
- 주요 사업내용은 녹색생활 주민실천교육(환경기초시설, 에너지자립마을 견학 등) 실시, 에너지 절감시설(LED등, 절전형 멀티탭, 절수기 등) 설치,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 설치, 태양광 가로등 설치임.

• 전북 또한 '15년부터 공약사업으로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실천활동,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여 농촌마을 에너지복지를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함.

- '15~'18년간 총 14개의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마을당 1억 원(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18년 기준)임.

- 주요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 실천교육 및 견학, 저소득층 단열지원, LED등 교체, 개인주택 태양광·태양열 시설 설치, 마을발전소 등임.

5.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과 정책과제

- 에너지 관련 주민인식 변화–에너지절감–친환경에너지 전환
  - 단순한 수익성 사업으로서의 에너지발전이 아닌 마을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체계적 모델 필요함.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소비 패턴 개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에너지절감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로컬에너지 즉, 친환경에너지원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인식 변화, 에너지 절감,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마을, 지자체, 국가 단위의 목표 및 플랜이 요구되며, 각 층위별 세부정책 및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따라서 타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마을 단위 사업과 같은 기존의 농식품부 또는 타부처의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정책의 인식의 전환 필요
  -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에너지 자립마을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에서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며,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이 결합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단순 생산 및 판매보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표가 되어야 함.
  - 현재의 설비와 물량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

관리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개량사업, 에너지절감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 현재의 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미리 정해진 사업 틀 제시와 예산 지원 중심임. 이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민조직이나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사업들이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나거나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정부주도의 사업은 현장의 수요나 역량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확산에 실패함.
  -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관련 사업의 재원이나 기술, 정보를 마을의 자발적인 실천들로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운영이 필요함.
-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역할 분담
  - 마을사업에 관한 주민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비경제적 사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연구 및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음. 따라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주민이 사업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주민의 참여 동기 부여나 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에너지 자립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임.
- 에너지절감
  - 에너지자립을 위해서 에너지소비 감축은 필수적으로 선제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농촌주민 및 농업인의 에너지 절감에 관한 관심도는 높음.
  -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원예농가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농업부문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자립과 같은 목적과 연계되지 못함.

- 에너지자립이라는 틀 안에서 농촌(생활용)과 농업(농업생산용) 구분하여 에너지 절감 방법을 교육하고 에너지절감시설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효과를 계측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에너지 확산

- 농촌·농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 중심이었으나 최근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농촌형 태양광발전 사업 등 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주체가 주로 외지인으로 판단되며, 농업인은 오히려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태양광 발전사업보다는 마을단위의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주민갈등과 같은 민원발생이 낮음.
- 농촌(생활용)과 농업(농업생산용)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용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산하여야 하며,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사업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E 01-2019-01

농업·농촌경제동향 2019 봄호 | 제22권 제1호 (통권83호)

등 록
인 쇄 2019. 5
발 행 2019. 5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전 화 061-820-2283 팩스 061-820-2409 http://www.krei.re.kr
인쇄소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